

한국 YWCA

2022년 11·12월호
NOV · DEC Vol.581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유스포럼'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 성장공유회'

이슈포커스
여성신학 아카데미: 기독교의 평등사상

청년토크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혼란스럽고 미친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힘

이달의 현장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2인 시위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순천	061.744.7990
거제	055.682.4950	안동	054.854.5481
(사)고양	031.919.4040	(사)안산	031.483.6536
광명	02.895.1966	(사)안양	031.455.2700
광양	061.762.0012	(사)양산	055.367.1144
(사)광주	062.609.1300	(사)여수	061.654.2161
군산	063.462.4491	(사)울산	052.247.3520
김해	055.332.6000	원주	033.742.6090
남양주	031.577.7762	의정부	031.853.6332
남원	063.632.7002	익산	063.857.8910
(사)논산	041.736.7393	(사)인천	032.424.0524
(사)대구	053.652.0070	(사)전주	063.224.5501
(사)대전	042.254.3035	(사)제주	064.711.8322
동해	033.531.3007	제천	043.645.2580
마산	055.246.8746	진주	055.755.3463
(사)목포	061.242.1611	진해	055.542.0020
(사)부산	051.441.2221	(사)창원	055.283.9488
부천	032.668.9700	천안	041.575.0961
사천	055.833.2344	(사)청주	043.265.3700
(사)서귀포	064.762.1400	춘천	033.254.4878
(사)서울	02.3705.6000	충주	043.848.3240
서천	041.951.6400	(사)통영	055.646.2547
성남	031.708.2503	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속초	033.635.3523	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하남	031.793.7771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Y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W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C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A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시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1922 · 2022



2022. 11 ·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불평등과 혐오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의 공동 주관으로 11월 15일(화)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을 벌였다.

2023년 1·2월 주요일정

- 1월 4일 YWCA 신년예배
- 1월 7일 대학·청년 전국협의회 총회
- 1월 13-14일 2023 Y-틴 전국협의회
- 2월 11일 카다리학교 활동 나눔
- 2월 22-23일 YWCA 신입회장교육
- 2월 23일 2023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제58권 제6호 통권 581호
2022년 12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김은주 최수신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 여성주의' | 백소영
- 05 **말씀 묵상** 세련된 자매애 | 전수희
- 기획1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06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유스포럼' | 손지수
- 09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홍청망청 성장공유회' | 홍현정
- 기획2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지역기후운동 만들기**
- 12 기후위기를 다루는 운동과 화법 | 김현우
- 15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 | 유에스터
- 17 **이슈포커스** 여성신학 아카데미: 기독교의 평등사상 | 이주아
- 20 **탈핵** 기후위기행동의 방향과 기후운동의 과제 | 한재각
- 22 **평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대만 군사침공 가능성 | 신상진
- 24 **청년토크**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 대학·청년YWCA
- 26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혼란스럽고 미친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힘 | 이윤숙
- 28 **로컬프렌들리 이야기9** A-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 운영사' | 김수진
- 30 **이달의 현장 ①**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2인 시위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 ②** 카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 이은혜
- 34 **이달의 현장 ③**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편집실
- 36 **이달의 현장 ④** YWCA부산 탈핵 현장예배 | 유에스터
- 38 **이달의 현장 ⑤** 사람책방_히즈빈스 카페 임정택 대표 | 조은지
- 40 **이달의 현장 ⑥**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 편집실
- 43 **YWCA 변화와 혁신11**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대전환 | 이명신
- 46 **온라인모금 워크숍** YWCA운동을 살리는 모금 | 최유주
- 48 **성명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49 **성명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다
- 50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 51 **연합회 소식**
- 57 **연합회 모금현황**
- 60 **회원YWCA 소식**
- 72 **2022년 <한국YWCA> 목차 색인**

YWCA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 여성주의'

백소영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강남대학교 교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생명이 의미 있게 존속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100주년을 맞이하며 법인(法人)으로 거듭난 YWCA도 마찬가지이다. 사람 '인(人)'자가 시사하듯이, 법인의 구성원은 결국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마치 한 개체의 세포들이 모여 협력하며 한 유기체의 생명을 이어가듯, 법인도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YWCA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구성원들의 정체성 인식'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 다양한 구성원들의 유입, 양적으로 성장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실질적 세포들이 존재하는 '유기체'로 성장한 YWCA는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 당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나온 결과물이 <한국YWCA연합회 정체성 선언>(1987)이었다. 선언문은 YWCA가 목적 단체임을 분명히 하며 "여성 운동체"이자 "기독교 운동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런데 YWCA의 "여성 운동체" 정체성이라 밝힌 여성의 자아의식 고취, 여성 능력 계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는 여타 여성 단체들의 정체성과 다를 바 없었다. "기독교 운동체" 정체성으로 제시한 소외된 이웃 돌봄과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여타 기독교 시민 단체의 목적과 활동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YWCA의 활동이 다른 시민 단체들과의 교집합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민 단체의 목적이 그러하듯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기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1987년의 선언문을 보아도 이전이나 이후

에 진행된 활동을 보아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중 구조'였다. 여성 운동체로서는 여성 시민 단체와 연대하고, 기독교 운동체로서는 기독교 시민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말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단체에서는 하나만 하기도 벅찬 운동을 YWCA에서는 '둘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당연히 운영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지칠 일이고,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 YWCA 구성원들에게는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여성'과 '기독교성'이라는 정체성이 YWCA에 참여하는 한 개인 안에서는 통전적으로 작동했는지 몰라도, YWCA라는 '법적 사람'은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한국YWCA가 100주년을 준비하며 연구와 성찰, 기도 끝에 제시한 것이 '기독교 여성주의'라고 생각한다. 핵심을 제대로 잡은 정체성 선언이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들의 강의가 열렸다. 이제 시작이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질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가부장제 시스템 바깥의 사유이고 언어이고 행동인 '여성주의'의 시각과 만나서 비로소 YWCA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으로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 생명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기독교 여성, 그러나 각자 도생이 답이라 말하는 이기주의적 생존경쟁을 넘어 '살려내는' 예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여성주의'이다. 그래서 YWCA는 '살아내고 살려내는 기독교 여성 운동체'이다. 

세련된 자매애

출애굽기15:19 ~21

전수희

목사, 움트다연구소 대표



지난 100년간 YWCA가 쌓아온 자매애를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여성들이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성 과 함께 변화를 향해 가는' YWCA가 한층 더 '세련된 자매애'로 한국 여성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련된 자매애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언니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 만약 우리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맞이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미리암은 구약시대의 첫 여성 '선지자'였음에도 선지자 이전에 '아론의 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보다 먼저 쓰였지만 모세의 노래의 요약본인 것처럼 편집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외된 자리, 주변부에 위치한 자들이었기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함으로 세련된 자매애를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세련된 자매애의 두 번째 지점은 연대하는 언니들입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자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갔고, 이에 미리암이 화답하여 노래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미리암 혼자서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이 홀로 서지 않도록 함께 해 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합하여졌고,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어서서 연대했기에 이들의 이야기는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성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하면서 늘 고백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며 세련된 자매애를 나누십시오. 때로는 앞서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응원하며 따르기도 하면서 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련된 자매애의 마지막은 기록된 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얼마나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 헤쳐는 기록되지 않았을 여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지금도 여성들의 이야기는 쉽게, 저절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성 선지자, 미리암의 존재는 구약 시대에도 여성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오늘날 여성들에게 힘이 됩니다. YWCA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가지 화함으로 세련된 자매애를 기록해 주십시오. 기록된 언니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보여준 세련된 자매애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억압, 편견과 차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대하며, 기록되는 YWCA의 여성들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운영사' 로컬프렌들리의 군산 이야기

손지수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주)로컬프렌들리 팀장

세션1 : 로컬프렌들리 37개년 사업의 의미

세션1은 비영리 시민단체의 소셜 미션만을 가지고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에 뛰어난 로컬프렌들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바라본 로컬프렌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주선 교수(충남대학교)는 '왜 로컬인가? 로컬의 가능성과 로컬크리에이터'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 교수는 안산YMCA 마을만들기센터를 거쳐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일을 하며 연구 분야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가 현재는 충남대학교에 재직하며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로컬', '로컬브랜딩',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시스템이 중요한 효율의 시대에서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이라는 말이 중요해지는 '운영자 전성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활동가', '사업가', '예술가'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은 지금까지 서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 겹치지 않는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사업가'와 '예술가'가 겹치는 영역의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활동가'와 '사업가'가 겹치는 영역은 부재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활동가'와 '사업가'가 겹치는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이 '큐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래프트' 같은 역할이며 그것이 바로 '로컬프렌들리'라고 소개했다. 로컬프렌들리 운영에 있어 따뜻한 운영, 든든한 맷집, 숨지 않음, 지역 이야기 발굴, 지역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하는 독보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슬기 팀장(언더독스)은 '지역 혁신을 일으키는 청년 창업, 로컬라이즈 군산 소개'를 주제로 로컬프렌들리가 속해

있는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민하는 SK E&S와 혁신 창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 언더독스의 고민에서 시작한 로컬라이즈 군산은 지역혁신 창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군산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 군산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창업가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타지역의 창업가가 새로운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에 대해 고민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팀장은 5년차를 맞이하며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를 '커뮤니티'라고 말하며 이 중심에는 로컬프렌들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컬프렌들리가 이름 그대로 지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지역민들과 서슴없이 지내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로컬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만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컬프렌들리가 그 가운데 중간 본드 같은 역할을 잘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밝혔다.

김수진 대표(로컬프렌들리)는 '로컬프렌들리의 활동 내용 및 향후 목표'를 주제로 로컬프렌들리의 지난 3년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 운영사인 로컬프렌들리는 초기교회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였던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YWCA 안에서 지역의 여러 재미난 활동들을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희망과 고민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이제는 기업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① 유스포럼 단체사진
 ② 김준호 더함 이사가 발제하고 있다.
 ③ 임효묵 빌드 부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됐다.

로컬프렌들리는 앞으로 기업과 시민단체 그 두 영역 모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기업가로서는 우리의 가치를 비즈니스로 잘 담아내고, 비영리 영역에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대표는 김수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라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필드에서 뛰는 것을 넘어 판을 깔아주는 사람,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션2 : 새로운 지역에서의 지역운동 실험 방향

세션2는 로컬프렌들리의 '다음 NEXT'에 대한 계획에 힘을 실어줄 분들을 연사로 모셨다.

김준호 이사(더함)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지역 내 공간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국YWCA와 로컬프렌들리의 지역운동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었다. 로컬프렌들리는 조직 내의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창업'을 목적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시민단체의 운동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방법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고, 확산하고 지키는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너는 활동가냐? 사업가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 틀에 우리를 어떻게 맞추지 고민하기보다는 '난 이러한 가치를 이뤄가는 사람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 말했다.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게 여러 청년활동가가 로컬재생사업이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을 다양하게 펼쳐가고 그들이 모여 한국YWCA의 개별 공간을 채워갈 것인지, 군산에서의 실험을 마무리하며 한국YWCA가 가진 공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자산 관리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효목 부대표(빌드)가 운영하는 빌드주식회사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시흥, 지역 운동 필요성, 로컬 비즈니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 부대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미션을 가지고 유희 공간을 활용해 육아 인구, 특히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의 자원(인적, 물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원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도시인 서울과 지방 도시의 사이에 위치하여 정책 지원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서 절충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활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있다고 제안했다. 로컬프렌들리와 한국YWCA가 경계에서 길을 찾고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션3 : 종합토론

총 다섯 개의 발제에 대한 정리와 질의 응답을 하는 종합토론의 시간은 이은영 부회장(한국YWCA연합회)이 사회를 맡았다. 종합 토론에서 발제자들은 지역과 청년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비취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로컬프렌들리와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포럼은 내부의 시선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의 시선으로 로컬프렌들리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은영 부회장은 종합토론을 마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의식,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확산, 정체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제 속에서 확인했다고 말하며 로컬프렌들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가 확대되길 바래본다는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던 유스포럼은 유튜브 '한국YWCA연합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로컬프렌들리의 군산 이야기는 내년 출간될 로컬프렌들리 아카이브 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 세상을 바꾼 청년들의 이야기

흥현정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YWCA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청년 대상 공모전, '흥청망청'은 올해 4월에 청년들이 흥하도록 '응원'하고, 청년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서 50개를 받아 그 중에 13개 팀을 선발하였고, 각 팀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아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6개월간 힘써 도전했다. 그리고 그간의 성장을 나누기 위해 각 팀들의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듣는 '흥청망청 성장 공유회'가 지난 12월 22일(목)에 연합회 회관 A SPACE에서 열렸다. 성장공유회 1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두 팀씩 선

정해서 수상하였다. 대상은 '지역 독립서점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무형서재'와 '세이브미 세이브어스'에게, 우수상은 '보노보 프로젝트', '잔차:여담'에게 돌아갔다.

대상은 '지역 독립서점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무형서재'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된 '무형서재'팀은 전국에 있는 16개의 독립서점을 모집하여 플랫폼을 제작하고 독립서점 경영을 함께 도우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독립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 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독립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색 있는 서적의 홍보 뿐 아니라 북위크숍, '달쓰기 크루' 운영 등을 도왔다.





대상 '지역 독립서점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무형서점'



대상 '세이브미 세이브어스'



지역독립서점에서 책방을 운영하느라 생각만 하고 실현하지 못했던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을 때 무형서재팀이 참여자 모집부터 참여자 관리, 현장 피드백 등을 제공해서 독립서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 지역 독립서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지역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창신(28) 무형서재 대표는 “6개월간 소통한 16개의 서점이 자산으로 남았다. ‘흥청망청’을 통해 꿈꾸던 사역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다.

‘세이브미 세이브어스’는 팀장 박규희와 팀원들이 모두 고등학교 학생이다. 정읍지역에서 여성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 접근도가 낮은 여학생들에게 친환경 월경 용품에 대해 소개하고 사용하는 월경 용품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만화교재와 친환경 월경키트를 직접 제작해서 교육과 함께 전달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서 관련 내용을 홍보

했다. 교육기획부터 진행까지 스스로 한 경험을 나누어 온 팀원들은 자신들의 도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보노보프로젝트 팀장 차서영과 팀원들은 지난 8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하는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이라는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해 연구하고, 연극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9.24 기후정의행진에도 참가하는 등 연극 공연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을 시도했다.

잔치:여담팀 손지수 팀장은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 창업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지역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페미니즘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3개 팀들 중에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팀도 있었다.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오



성장공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나누었다.




흥청망청 모듬 나눔 시간

채스트라팀은 채소 악기를 만들고 지역 보육원 등에서 채소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채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기존의 채소 섭취 장려 프로그램의 경우 타겟 대상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게 와 닿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열심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아동 관련 시설을 찾기가 힘들었다. 결정적으로 채소로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또 키우던 채소 재배가 학교에서 금지 당하기도 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채소 컬리링 북 등 채소를 형상화한 굿즈를 만들어 지역내 도서관과 유치원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 했다.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성장공유회 2부에서 진행된 소그룹 토론에서 실패 원인을 찾으면서 그런 순간에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깨달음도 있었다.

흥청망청 프로젝트의 선정부터 마지막 수상자 선정까지 함께 진행한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은 흥청망청 성장공유회에서 “‘흥청망청’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결실을 맺었다는 게 의미가 있었다. 13개팀 중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한 팀도 있었지만 실패를 통해 다시 도전할 힘을 얻은 것 또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참여한 모든 팀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특별 결과 영상은 KOREA YWCA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등 청년들의 세상을 바꾼 이야기가 담겨있다. 2023년에도 계속될 ‘흥청망청’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길 바란다. 

기후위기를 다루는 운동과 화법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2019년 이후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고 관련 정책들도 쏟아져 나왔지만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를 걱정하고 남은 탄소 예산에 가슴 졸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왜 사람들은 절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부는 추상적인 탄소 감축 목표와 사업명만 나열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을까? TV 뉴스에 기후위기는 언제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방식으로 휘발적으로 소비되고 말까? 해외에서는 ‘멸종반란’ 같은 급진적인 기후 대중행동도 일어나는데 ‘기후야당’ 국가로 비난받는 한국은 왜 이리 평온할까?

그런데, 쉽사리 기후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늦고 미온적인 이유에 관하여 자문해봐야 할 것들도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산업화 이후 1.5도 상승이라는 숫자, 50%의 확률로 8년 정도가 남았다는 탄소 예산, 또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평가보고서의 숫자와 표현들이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것이다. 매일 날아오는 휴대폰 요금과 전기 요금은 곧장 실감이 오지만 기후 과학의 많은 데이터들은 구체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 어렵다.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의 고통과 굶어죽는 북극곰의 사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들과 우리 자신의 삶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다.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대중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정보의 결핍 때문이며 올바른 데이터와 행동 방안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매우 많은 요인과 조건이 개입되는 복잡한 과학 현상이다.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 연소량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것이 곧 몇 년

도에 몇도 상승 또는 해수면 몇 센티미터 상승, 생물종 몇 퍼센트 멸종 같은 식의 단정적 예측으로 제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런 물리적 기후변화 현상들이 어떤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특히 계층에 따라 어떤 피해를 미칠지도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인 조지 마셜은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기후변화가 과학적 연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대응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사악한 문제’라고 진단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돈 룩 업>은 지구로 다가오는 혜성으로 기후변화를 은유하고 있다. 영화에서 6개월 뒤에 지구에 충돌할 혜성의 존재와 충돌을 막아낼 방법은 확실하지만, 지금의 정치와 문화는 그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울하게 보여주고 있다(이 이상은 스포일러이므로 영화를 직접 보시기를 권한다). 하물며,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전달하고 대응하는 일은 몇 십 배나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너무 미리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좀 위안이 될 것 같다. 대신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전달하고 행동을 요청하는 노력 속에서 흔히 있는 좋지 않은 몇 가지 접근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한다.

기후위기는 전문가, 정치인들, 환경운동가의 일이나 아니라 우리의 일

첫째, 우리는 사람들을 겁주고 압박하고만 있지 않은가?



기후변화는 가까운 미래의,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실체는 아니며, 공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충격과 압박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너무 무서워서 생각조차 하기 싫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위기의 실체에 관한 정보도, 우리 스스로도 너무 일면적이거나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의 『2050년 거주불능 지구』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가져올 재난 시나리오를 12가지 측면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티핑 포인트를 넘는다고 곧 ‘거주불능’의 상태나 더군다나 ‘지구 멸망’이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의 현실적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차라리 <인티스텔라>의 장면들이다. 수시로 모래 폭풍이 불어오고 과거와 같은 경작 활동도 어려워져서 다른 은하계로 이주처를 찾아 나서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1.5도는 절대적으로 안전과 멸망을 가르는 숫자가 아니다. 1.1도 상승도 이미 큰 피해를 주고 있고, 1.6도 보다 1.5도 상

승이 훨씬 안전해지지만 1.7도가 아닌 1.6도 상승을 막아내면 훨씬 희생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령 2.5도가 올라간다면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더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나옴이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에서 정말이지 ‘모든 것(everything)’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핵발전이나 핵융합, 또는 지구공학적인 여러 해법들을 넣을 수도 있다.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조차 BECCS(바이오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의 결합) 같은 해법들을 버젓이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는 탄소세 도입이나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염려하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는 여러 논리들을 ‘기후지체 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급진적인 전환 정책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만

추구하는 담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담론,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투항 담론, 변화가 수반할 부작용을 강조하는 담론 등의 유형이 있다.

환경 경제학자 폴 호킨이 주도한 『플랜 드로다운』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서 이미 개발이나 적용이 가능한 80가지 해법을 담고 있으며, 이 자료는 IPCC의 기술 중심 시나리오보다 오히려 좋은 참고가 된다. 하지만 이런 해법들이 현실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유일하게 정확한 하나의 해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실성을 인정하는 더 많은 토론과 제안을 통한 수많은 해법과 행동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는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나누고 있는가? 기후위기가 먼 나라와 동식물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일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사람들은 뉴스와 책에서 본 정보들을 자연스레 이해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은 기후위기는 전문가와 정치인들 그리고 환경운동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개인의 소중한 매개를 이용

기후변화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라

북미의 기후학자 캐더린 헤이호는 모니터 앞에서 기후 모델만 만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중 강연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를 개인들에게 소중한 매개를 통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키 동호회에 가서는 기후위기가 극심한데 왜 이런 스포츠를 하느냐고 타박할 게 아니라, 매년 줄어드는 산 정상적 적설량을 이야기함으로써 스키어들에게 기후변화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스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헤이호는, 미국에서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다가선다. 창조주께서 지구와 생명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겼는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행위는 그런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명하면 신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의 '기후 우울을 마주하는 글쓰기 워크숍' 2기 참가자의 글

한편, 리베카 헨틀리는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서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한 기후변화 말하기를 제안한다. 헨틀리는 기후변화는 과학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고, 인간에게는 사실 못지않게 '감정'이 중요함을 환기한다. 튜베리 같은 10대 소녀 기후운동가들은 찌렁찌렁한 확성기 대신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가식없는 대화를 택했고 그것은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어떤 메신저이고, 나만의 기후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공감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말할 때 정해진 공식은 없으며 어떤 청중에게 성공했던 논리와 전달법이 다른 청중에게도 쉽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헨틀리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죄책감을 통해 행동을 요청하고, 공포는 유머와 희망으로 희석시키고, 분노는 편가르기가 아닌 원동력이 되도록,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절망은 함께 연대하며 극복하고, 희망을 말하되 도피하지 않고, 상실로 소중한 것을 일깨우고, 사랑을 매개체로 기후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리한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기후 비상상태를 다루는 연극, 기후우울증 글쓰기 워크숍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들만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있고 대중을 계몽하면 된다는 자의식 보다는, 우리 스스로 언제나 부족하지만 같이 배우고 느끼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기후 시민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 🌱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사)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중점운동으로 결의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이 따로, 또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2022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이 11월 2일(수) 마지막 회차로 종료되었다. 이번 5차 콜로키움은 '지역기후운동 만들기'를 주제로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강의와 권역별 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은영 RE100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콜로키움에는 25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총 55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콜로키움 1부는 김현우 소장의 '기후위기를 다루는 운동과 화법' 강의로, 국내외 기후운동의 흐름을 알아보고 지역에서 기후운동을 조직하는 방법과 메시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 지의 앞선 칼럼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우 소장은 특별히 이번 9.24 기후정의행진을 언급하며 개인 차원의 실천을 확산하되 그 유용성과 함점을 잘 살필 것을 권고했고,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조직의 '연대'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움직여 할 것을 말했다. 이어 YWCA의 경우 52개 지역에서, 또 연합하여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기후운동에 중요한 '거점'임을 또한 역설했다.

이어진 2부 권역별 토론은 총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023년 각 회원Y별, 권역별 기후운동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권역별로 나뉜 소그룹에서는 각 회원YWCA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2023년 진행될 프로그램과 운동을 공유하고, 권역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운동방향을 모색했다. 채식조례 제정, EM활용, 지역별 기후운동 조직, 권역별 활동가 기후스터디, 우수사례 공유 등의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권역별로 논의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022년 마무리된 총 5회의 YWCA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의 강의는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



5차 콜로키움에 모인 회원YWCA 탈핵 활동가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의 1부 강의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안을 모색했다.



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콜로키움 강의자료와 참고자료, 권역별 토론집, 콜로키움 강의자의 칼럼, 참여수기, 2022 탈핵 기후생명 캠페인 자료, 성명서 등을 담은 자료집이 온라인으

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전체가 함께 진행하는 콜로키움 대신, 도별로 운동을 배우고 논의하며 구성하는 YWCA 도협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별 토론 : 기후운동, 우리 권역에서 함께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기 인천 강원	<p>1 우리권역 기후운동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관점의 기후예산 분석 - 채식에 대한 조례 논의 - 보고서 발간 - 지역 사회의 작은 변화 만들기 <p>2 우리권역 기후운동 조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팀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함 - 권역별로 힘을 합쳐 함께 강의 듣고 스터디 진행
충청 권역	<p>1 우리권역 기후운동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 및 청소년, 청년 대상 - 권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캠페인 지정 <p>2 우리권역 기후운동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역 Y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을 인증할 수 있는 날 지정 - 자동차 5부제처럼 자동차 없이 출근하기 - 매월 22일 채식의 날로 준비하여 같이 기후운동에 동참하는 것 - 권역별 교육을 받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 필요(ex. 아너바다장터) - 별 보는 밤 프로그램, 충청권역으로 확대 운영
경상 권역	<p>1 우리권역 기후운동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회원, 시민,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 기후위기비상행동연대 등의 환경단체들 및 활동가들, 지자체 대상 - 환경운기후위기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확산 및 강화 - 권역이 함께 고민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 (예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지안 10계명) - 경상권역 Y 실무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 <p>2 우리권역 기후운동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교육, 캠페인, 정책제안 지속 (EM 자원순환 및 제로웨이스트 관련 교육, 탈핵 및 기후위기 관련 캠페인) - 지자체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관련 정책 제안, 기후위기 비상대책 위원회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 - 지역 특성에 따른 활동 (부산 : 고리 2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운동 집중전개, 태양광 햇빛모아 발전소 2호기 설치 / 사천 : 해양환경 교육 강사 양성과정)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 내부임직원 역량강화 및 마인드 제고 (실무자들부터 RE-100을 실천하고 행동) - 지역환경에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의 조직 강화 - 권역 내 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우수사례 공유 - 환경운동과 관련한 권역별 실무자들 간의 모임 형성
전라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협업하여 동시다발 캠페인 전개 - 우리권역의 재생에너지 사용현황 파악 -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지역 RE100활동 : 씨앗강사교육 운영, 씨앗교실 지역사회 연계 운동,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캠페인 등 - 권역별 중간관리자 혹은 운동전담자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운동방식을 배우고 공유하고 실천

여성들이 만들었고, 만들어왔으며,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주아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다 사무총장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성들은 여성과 남성, 인종, 계급 차이를 뛰어 넘는 해방의 사랑을 만났고 이에 헌신해왔다. 지금의 세계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데에는 열정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따랐던 여성들이 있었다. 성서와 기독교 역사 안의 여성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교육학자 엘리엇 아이즈너에 따르면 아예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무지는 사람을 왜곡되고 편협한 사고를 하도록 유인한다. 늘 발생하는 '교과서에 이 내용을 넣느냐 마느냐'로 옥신각신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그라미만 배운 사람이 네모를 상상할 수 없듯이, 남성의 이야기만을 듣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여성의 역할로 침묵이나 보조적 존재 외에는 배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미리암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로 '모세에게 불순종하여 피부병을 얻은' 이야기가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 가장 먼저 나서서 소고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한 리더의 인정받는 리더였다. 지금도 파티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건배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구약 시대에 여성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어떠한가? 성경에는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을 한 예언자는 여성인 홀다였다. 당시 남성 예언자인 스바냐와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있었지만 대체사장과 왕의 신하들은 성전 귀퉁이에서 발견한 책의 해석을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당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예언자이자 율법학자였던 것이다.

슬로브하트의 딸들은 고대의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신들의 권리를 회

중 앞에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기도 했다. 여성은 인구수에 계승되지도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었던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이름까지 모두 거명되며 기록에 남아 있고, 이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이 재산을 상속받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직관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에 따라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말을 인정했다고 나와있으니 말이다. 수천년이 지난 후야야 여성에게 참정권과 상속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시대에 여성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성경 곳곳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주로 성경의 성차별적인 요소에 갈등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쓰여진 고대의 시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여성의 이야기와 활약상들이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이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를 해석하고 전달해 온 이들이 성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여성들은 성경 곳곳에서 맹렬한 활약상을 보인다. 여성들은 예수 운동 당시에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남성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십자가 처형 자리를 지켰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성이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시대에 그 중요한 부활의 증인들로 여성들을 택하셨다! 죽음보다도 예수님을 택한 여성들, 그 여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도 리더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바울은 뱀피를 언급하며 prostasis라는 용



초기 기독교 순교자 성녀 페르페투아와 성녀 펠리치타의 초상화



전도부인들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했다.



애국여성회는 여성들도 주체적인 독립운동가로 나선 일대 사건이었다.

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1세기 문헌에서 보통 지도자, 의장, 감독을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이다. 일꾼 또는 집사라고 번역되는 diakonos 또한 바울이 공식적인 회중의 지도자를 언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즉, 바울은 여성들을 회중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며 동역의 관계를 맺고 존중했는데, 이후 번역에서 봉사자나 집사 등의 보조적 뉘앙스로 바뀐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로 일컬어지는 유니아 역시 여성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후대 학자들에 의해 유니아라는 남성 이름으로 오랫동안 바뀌었다가 연구자들이 다시 여성 이름인 유니아인 것으로 밝혀낸 경우이다.

널리 알려진 초대 교회 세례 고백문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남성도 여성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급진적인 평등 선언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했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기독교는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했고, 사회의 하부층에서 신음하던 이들은 그 안에서 빛과 해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테클라 행전이나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의 옥중 순교기 등 당시의 문헌들은 여성들의 용감한 믿음과 순교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은 말없이 순종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강인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강한 집념을 보이며 포기하지 않았을까?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도 우리는 초대 교회 시대의

여성들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둘 다 공통점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던 시기에 그들이 발견한 해방과 자유, 평등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후기 조선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서 여성은 사회의 가장 하위에 위치한 노동자이자 모든 것이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존재였다. 여성들은 부모가 정해진 남자와 결혼하여 삶바느질이나 빨래 등을 하며 가족 혹은 본인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을 뿐더러, 남편의 외도와 구타 속에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의 결핍, 무지, 그리고 흔히 수줍음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얼굴은 까칠까칠해졌으며 상처투성이”였다. “내외의 풍습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인식의 세계로부터 노예와 억압의 세계로 사라져” 가고, “감금되어 왔고, 매매되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조혼을 강요당하며 “불행한 가정, 축첩, 무책임한 양친, 20명의 가족들이 두세 칸의 좁은 방에서 장애물 경주를 하듯,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J. S. 게일, 신복통역, 『전환기의 조선』(서울: 집문당,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유입된 근대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가부장제 안에서 오로지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받아오던 여성들은 해방으로서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변화시켜갔다. 기록에 의하면 전도부인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명 한명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경청과 공감, 눈물과 연대 속에서 전해진 해방의 성서였기에 조선 봉건제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몽둥이로 맞아 정신을 잃으면서까지” 조선 여성들은 기독교에 매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더니 이제 예수를 알고 난 후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닌가?”(전삼덕)

우리 신앙의 선배 여성들은 한없이 영민하고 평등에 대한 직관적 감수성을 깊이 가지는 동시에 주체적으로 행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살아갔는지를 잠시 살펴보자. 1897년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은 남자들에게만 가르쳐지던 한문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넣어 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청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 모여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예배당 설립을 요구하여 1897년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자 통합 예배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인 정동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1897년 정동 교회에서벌어진 남녀 토론의 현장에서는 휘장 뒤에 앉아 있던 조이스회 회원들에게서 돌발 발언이 나와 남성들만의 토론에서 “형제와 자매들의 입장 토론”으로 바뀌는 장면이 보도된다(“정동 새 회당에서 행한 일”, 『대한 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12월 29일자).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이 세계 인생을 내실 때 남녀의 권리를 갈게 하셨다. 남녀가 동등한 교육, 동등한 권리를 가져 인생에 대한 사업을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와(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시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셨으리”. 얼마나 놀라운가!

이 뿐만이 아니다. 교회의 성차별적인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 벌써 100년의 역사가 넘어가고 있다. 1922년 300여명의 남감리 교회여전도사들은 “남녀 균등을 찾는 이 때에 남자 목사의 급료는 7-80원에서 100원까지인데 여전도사는 20원내외”라고 하며 급료 차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교회의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항의는 여성 교회 치리권 획득 운동으로 이어졌다. 1933년 장로교 함남노회 104명

의 여전도회 회원들은 여성들의 장로 직위를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1934년 여성 안수 허가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고 말았다(윤소정, 2013, 47; 조윤희, 1994, 41-42). 아직도 몇몇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션스쿨에서는 소녀가 아닌 독립운동의 전사들이 발견된다. 1906년 이화학당 교장 페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미감리회 해외 여성교회 한국 선교회의 연례회에 보고하고 있다. 1905년 연말 이화학당 학생들이 매일 오후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개최하였으며,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집에서 기도하였는데 안 믿는 부모들까지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 며칠 지난 뒤 한 학생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비밀 조직들을 만들었으며,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1913년 송의여학교를 배경으로 조직된 송죽형제회가 있다. 독립운동 비밀 결사인 송죽형제회는 점차 교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 조직망으로 발전하였다. 이덕주 교수는 “송죽형제회는 남성들의 전용물처럼 인식되었던 민족 독립운동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독교는 여성들이 만들어왔고, 지금도 기독교 공동체는 여성들의 헌신과 사역 없이는 존재하기 힘들 만큼 여성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이를 이루어왔다. 앞으로도 여성들은 기독교의 중심으로 역사와 시대의 한 가운데서 일해나갈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 아래 모든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요엘서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나님 해방과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소서. 아멘. W”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들과 긴밀한 연대를 만들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전 9월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9월 2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 여 명이 넘는 수만급이나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기후불평등’을 고발하고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2019년 9월 21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전국 각지에서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과 비교된다. 3년 만에 기후운동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모아낸 것이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탓일 것이다.

2019년 이전,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판,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없지는 않았다. 2000년대부터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 참석하여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탤 때, 또한 기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환경단체 이외에도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COP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환경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이 함께 ‘기후정의연대’라는 연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기후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다. 대중조직까지 함께 한 기후정의연대는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대중운동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사실 한국의 기후운동은 탈핵운동 및 에너지전환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오랫동안, 지금의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회운동들이 탈핵/에너지전환운동에 헌신해왔다(YWCA도 그런 단체 중 하나다). 이를 대중적인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 즉, 서명운동, 집회와 행진, 주민투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삼척, 영덕, 밀양, 청도 등에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다. 그러한 헌신과 투쟁으로 ‘탈핵’이 정치사회적인 의제로 드러날 수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수용한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탈핵/에너지전환 운동이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자립과 자치 등—은 기후운동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보수 세력들이 탈핵운동과 기후운동판에서 핵에너지를 기후위기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많은 사회운동이 탈핵운동에 헌신하는 사이, 당면했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매달리는 사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사회운동이 따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앞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레타 툰베리와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상징되는 국제적인 청소년기후운동,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같은 청년들의 진보적인 기후운동, 영국의 멸종반란과 같은 급진적인 직접행동의 물결이 한국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2019년 봄부터 청소년들이 ‘결석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자극받아서 탈핵/에너지전환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를 비롯하



출처 : 페이스북 924기후정의행진 페이지

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해 9월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는 데 결집하였다.

사실상 탈핵도 아니었지만 보수 세력이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기후정책을 대신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9년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정치권을 변화시켰다. 다음 해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재난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함께 외치지 못하게 되자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은 전문가, 관료 그리고 기업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계기로 묘사된 반면 과감하고 공정한 ‘감축 목표’ 설정은 외면되었다.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부정 의하고 불확실한 수단을 채택했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가 비민주성과 그린워싱을 강력히 비판했고, 청소년과 종교계 위원이 증도 사퇴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서울 노들섬의 탄중위 회의를 거치면서 기후정의운동이 대중적으로 짝을 띄

웠다. 시민사회 위원까지 참여하여 원안을 통과시킨 탄중위에 맞서, 활동가와 시민들은 도로에 뛰어드는 등 경찰과 격렬히 대치하면서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해결의 주체이자 대안이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새롭게 기후정의운동의 모습을 드러낸 계기였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윤 추구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해온 기업과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부각시켰다.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등이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해결의 주체이자 대안이라고 선언했다. 온실가스 감축만에 초점을 맞추면 길을 잃기 쉬우며, 자본주의 성장체제 자체까지 바꾸는 ‘체제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은 정부와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려 했던 기존 기후운동과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수록, 위기의 뿌리를 끊어내는 운동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인권과 존엄을 지키려 부정의한 현 체제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구의 종말은 상상할 수 있어도, 자본주의 종말은 상상하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기후운동은 기후정의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보다 근본적 인식과 급진적인 태도로 거대한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 시간도 매우 빠듯하다. 기후정의동맹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의 지역 운동 그리고 곳곳에서 기후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4월 세종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함께 손잡고 싸우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대만 군사 침공 가능성

|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중 전면적 전략경쟁 시대 진입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 간 영향력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가장 위협한 장기적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목숨 줄을 조이려는 봉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중 지도자와 전략가들은 공히 현재의 미·중관계가 '전면적 전략경쟁관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냉전' 관계라고 주장한다. 미·중이 강대국 간 충돌로 치닫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미국 지도자들은 1971년 닉슨 정부 이래 40여 년 동안 채택해 온 대중국 개입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중국의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당장 봉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시스템은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한편, 국력이 증강될수록 중국이 지역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시기 이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와 중싱 등 중국의 첨단 정보통신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경제 무역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과 불법적 기술 절도행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고 보고, 미·중 간 기울어진 무역관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중국의 발전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과 과학기술 공급망

다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 2022년 5월 바이든이 도쿄를 방문하여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시킨 것도 중국과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작용했다. IPEF 창립 멤버로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등 7개 동남아국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들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현재 경제무역과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군사안보, 남중국해 자유 항행작전 및 대만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등 확대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고,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모와 구축함 등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하여 자유항행 작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과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위협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태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인 나토 동맹국과도 연대하여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2022년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한, 일,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국가 정상의 참가를 사상 최초로 초청하였고, 중국을 나토 회원국의 안보이익과 가치관을 위협하는 체계적 도전이라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념·제도 및 지전략 차원으로까지 미·중 전략경쟁이 확

산되고 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전쟁에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인·태전략을 핵심 외교안보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세계 지전략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독립 지향과 미국의 지원, 중국의 군사침공 가능성


대만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줄곧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였다.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함으로써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였고, 1954년 미·대만 방위조약 체결과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으로 미·중 갈등이 지속되었다. 1971년 닉슨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만문제가 핵심 의제였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 방위조약 폐기, 미군 철수를 약속함으로써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속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면서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자, 대만은 이를 독립 추진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대만에게 독립 추진 불가를 압박하고 미국에게는 대만문제 불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외교 고립화와 경제 압박 및 군사위협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대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대만 내에서 독립 지향적 여론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해 온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통일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게 되었고, 대만의 차

이잉원 정부는 미·중 갈등 국면을 이용하여 친미반중 정책을 모색해 왔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고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패권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 경쟁 상대로 규정한 이후 대만과 고위급 접촉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중국도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만의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제도적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개 표명하고 있다. 대만에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2024년부터 중국군 창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집권 3기가 종료되는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대만 방위를 위해 파병할 개연성이 있다.

대만에서 미·중 군사충돌은 곧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고, 한,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일차적으로 빨려들게 될 것이다. 주한·주일 미군의 대만 전쟁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이는 곧 한·중 및 중·일관계를 적대관계로 변질시킬 것이다. 대만사태를 기회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벌일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고, 중국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대만 파병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미칠 것이다.

대만문제로 인해 미·중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만이 현상타파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도 대만 주민들은 중국의 무력시위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속해 온 민진당 정권에게 엄중한 패배를 안긴 바 있다. 중국 역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만문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16세기 이래 '아름다운 섬'으로 불려온 대만이 화염에 불타지 않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멋진 섬으로 유지되기를 기원한다.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 대학·청년YWCA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중 속에 휩쓸렸고 수십 명이 쓰러지고 깔리면서 참사가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는 남의 이야기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나는 이번에도 우연히 살아남았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참사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대학·청년YWCA 회원들과 함께 청년토크를 나눴다.

10월 29일 토요일

용용 : 금요일 저녁에 티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던 것 같아.

나리 : 맞아. 심각한 일은 아니겠지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망자수 보고 충격 받았어.

요미 : 진짜 순식간이었어. 몇 시간 만에 재난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었잖아. 나는 재난문자도 엄청 받았어.

찌니 :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이라 사진들이 올라왔잖아.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바람에 나도 현장을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현장이 너무 기괴했어.

요미 :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춤추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부터 몇십 명이 바닥에서 심폐소생술 받고 있는 영상까지. 통제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지옥을 보는 것 같았어.

요미 : 나는 진짜 가까운 곳에 피해자가 있어. 회사 옆 팀에 20대 여성 팀원 5명이 그날 이태원에 갔다가 전부 사망했거든. 회사 게시판에 본인상이라고 여러 명이 뜨는데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충격이었어.

찌니 : 확실히 피해자 중에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교회에서 그 다음날 20대들 대상으로 생존

연락해 달라고 계속 문자가 왔었어.

나리 : 나는 용산에 살고 있어서 이태원이라 가까이니까 친구들한테 부재중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

용용 : 서울에 사는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이태원 간 거 올려서 나도 뉴스 보고 몇 십통 전화했다니깐. 다행히 일찍 집에 갔다고 연락 받았는데 그 친구는 사고 나기 전에 현장을 실제로 지나갔다고 하니깐 진짜 아찔했지.

세월호와 이태원

찌니 : 나는 이번 참사를 보고 바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어.

요미 : 나도 세월호 생각이 났어. 2014년에도 희생자들이 우리 나이대였잖아. 학교에서 전원구조했다고 뉴스보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잖아. 그때도 우리는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지.

용용 : 2014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거야. 나는 진도랑 이태원 둘다 추모하러 갔었어. 현장에 가보면 잊을 수 없는 공기, 날씨, 분위기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직접 방문해서 애도하는 것뿐이라 더 슬퍼.

나리 :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야. 애도하는 마음도 부족한데 비난의 목소리도 많아.

찌니 :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었잖아.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용용 : 비난의 반응들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야.

요미 : 우리는 어쨌서 언제 어디서 아까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

나리 : 그때도 지금도 나는 국가의 빈자리를 느껴.

용용 :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이 울었지만 애도의 기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

요미 : 맞아. 4월 16일만 되면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언제까지 저렇지, 이젠 지겹다'라고 말하더라고.

나리 : 정부는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고, 시민들은 그 자리에 왜 있었냐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찌니 :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은 절대 아니

지만 결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슬프다.

집단 트라우마

요미 : 나는 당시에 무분별하게 올라왔던 참사영상을 본 게 집단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나리 :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경험할 수 있어. 이후의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부족한 것 같아.

용용 : 합동분양소, 국가애도의 기간이 끝나니까 사건을 그냥 무자르듯 끝낸 느낌이야.

찌니 : 해외에서 참사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끄러워.

요미 : 집단 트라우마라는 걸 처음 경험해봐. 제3자인 우리도 트라우마를 느끼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부상자, 유가족은 더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어.

찌니 : 이런 트라우마는 초반에 개입하는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여러 정치적 싸움, 책임회피,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트라우마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용용 :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구조인력들도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 바로바로 해결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이기도 해.

공감의 부재

용용 :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야.

찌니 : 타인의 슬픔에 뜨거워지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값이라 생각했던 낭만적 시절을 겪은 나는 절망이 다시 올라왔어.

요미 : 세월호 사건도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이용을 당했잖아. 그때를 기억해보면 우리들 세대랑 부모님 세대랑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

나리 : 맞아. 우리집도 그랬어. 부모님이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너무 지겹다고 말하셔서 내가 피해자여도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싸웠었어.

찌니 : 나는 2012년에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던 고(故)이치우 어르신이 분신자살하셨던 일이 떠올랐어.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 목숨(?)을 잘 썼네, 어차피 죽을 노인 죽은 것이 대수인가?'라는 반응이 충격적이었어.

요미 : 어르신을 포함해서 송전탑에 반대하던 밀양의 모든 어르신을 말로 죽인 거네.

용용 : 다들 미성숙해서 그래. 미성숙한 인간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모자란 것은 '지성'이 아닌 '감수성'이야.

애도하는 마음

찌니 :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그저 '없을 수도 있지'로 끝내면 안돼.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거고, 잠재적 폭력이 될 수 있어.

나리 : 근데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 특히 청년세대가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

요미 : 내 일이 아니면 그닥 신경 쓰지 않지.

찌니 :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공부해야 돼. 몰랐다면 알아가면 돼.

나리 : 타인을 향한 감수성 회복과 위로의 마음, 슬픔을 공부하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강조해야 해.

찌니 :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마5:4)'라는 말씀이 있어. 슬픔이 지겹다 못해 조롱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을 지녀야 해. 이걸 곧 예수의 심장이야.

용용 : 맞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

찌니 : 슬픔이 지겹다 못해 조롱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을 공부하고, 온전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지녀야 해.

요미 : 이제부터 진짜 애도의 시작이야.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혼란스럽고 미친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고단한 삶과 다중우주 속의 다른 나

배우가 되고 싶었던 주인공 에블린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치듯 애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 결혼해서 산다.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낸 결혼이지만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삶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운영하는 코인빨래방은 끊임없이 불평해대는 진상 손님들로 바람 잘 날 없고, 당장 엔 사업의 존재가 걸린 세무조사를 앞두고 가득 쌓인 영수증에 둘러싸여 전전긍긍이다.

칼끝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져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한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엄마의 바람과 다르게 똥똥해져 있고 게다가 동성 애인과 집을 나갈 궁리만 한다. 도망치듯 떠난 딸에게 노년의 삶을 의탁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에블린은 그를 정성껏 돌보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그뿐이랴. 남편 웨이몬드가 준비해 놓은 이혼서류장도 그를 기다린다.

처리해야 할 영수증처럼 가득 쌓인 모든 불만과 불안으로부터 에블린은 탈출하고 싶다. 국세청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고 망연해 하는 순간, 알파 우주의 조종을 받는 남편 웨이몬드가 버스 점핑(verse jumpig) 장치를 건네자 갑자기 에블린 앞에 다중우주(멀티버스)로 점핑해 갈 길이 열린다. “넌 끝내지 못한 수많은 목표가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넌 최악의 너를 살고 있는 거야”라 속삭이면서 말이다.

에블린은 그렇게 열린 다중우주 속에서 다른 삶을 사는 ‘나’를 경험한다. 가수, 배우, 과학자, 요리사, 무술의 고수 등

등. 그리고 그 속의 ‘다른 나’는 부딪치고 싸우고 뒹굴고 울고 웃고 뛰어다니며 온갖 발랄하고 기괴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 멀티버스 세계 속 경험을 위해 영화는 SF와 쿵푸, 판타지,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수단을 동원한다.

그런데 이 다중우주 속 ‘나’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획책하는 우주 악당 조부 투파키(에블린의 딸 조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와 맞서 싸워 우주를 구하는 것 말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영화의 제목이 말해주듯 멀티버스 세계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에블린을 한숨짓게 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실패한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중의 나’로 변신하면서 악당과 싸워나간다. 그런데 정작 에블린이 싸워야 할 적인 악당 조부 투파키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Nothing matters)”고 하며 허무주의 자세를 보인다. 그렇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에블린 또한 멀티버스 세계에서 원하던 다른 삶을 살지만 여전히 혼돈과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싸우고 또 싸울 뿐이다.

그때, 남편 웨이몬드가 속삭인다. “우리 그만 싸우면 안될까요? 다들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싸우려는 거 같아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나는 세상을 밝게 보려 해요. 그게 내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내는 힘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사는 것

전략이에요” 그리고 간곡히 말한다. “여보 제발 다정함을 보여주세요(Be kind!!!)”.

다중우주 속에서 상상하고 원했던 수많은 나로 살며 악당과 싸우다가 문득 에블린은 깨닫는다. 딸 조이를 무너질 때까지 심하게 몰아붙인 것도 자신이고, 딸을 악당으로 만든 것도 자신일 거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은 조이의 엄마이고 딸이 영망진창이고 고집불통이고 우왕좌왕해도 괜찮다고 말이다.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곳에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고 싶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는 에블린의 이 말에 영화 내내 우당탕탕 정신없이 전개되던 멀티버스 속 이미지들이 훌연히 사라지고 가슴 뜨겁게 감동이 밀려온다.

우리는 대체 왜 이 곳에서 지금의 나로 사는 것일까. 왜 맘에 안 들고 고집불통이고 영망진창인 너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기에 오히려 허무하고 혼돈스런 멀티버스 세계에서 에블린은 이제 싸움의 전략을 바꾼다. 수류탄을 들고 덤비는 진상손님에게 죽은 아내가 좋아했던 향수를 안겨주고, 자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세금 조사관과 감미롭게 춤을 추고, 악당 조이에게 손을 내밀고, 너구리를 잃은 요리사와 함께 너구리를 찾으러 가고...

그런 깨달음은 현실세계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 코인빨래방을 영업정지로 몰고 에블린을 체포할 기세였던 세금조사관이 에블린의 혼란스럽고 난처한 상황을 듣고 이윽고 만회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딸 조이의 동성애인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딸의 모습이 이렇게 앓고 상식이 통하는 것은 한줌의 시간뿐인데 왜 여기에 나와 있으려 하느냐는 딸 조이의 말에 에블린은 말한다. 그 한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그 순간 떠나려던 딸 조이가 엄마 에블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린다.

모든 것이 될 수 있기에 결국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에블린의 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바꾸게 하는 힘,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려는 무수한 부정의와 혐오, 미움과 갈등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우주로 달아나고 싶은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잘 싸우는 법’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사는 것임을 이 영화는 아주 환상적이고 멋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가슴 절절하게 환기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 운영사'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Local Friendly)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과 '우리술(전통주) 보틀샵'을 운영하며 외국인 군산을 여행처럼 살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군산이 되길 꿈꾸며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2022년에는 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의 비즈니스화,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고민의 여정을 총 5번의 글을 통해 연재한다.

Association : 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

Y.W.C.A의 마지막 단어인 A는 association의 약자로 협회, 연계, 관계, 연관, 유대 등의 뜻을 지닌다. YWCA는 A를 '회원운동' 즉,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는 운동체로 소개한다.¹⁾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association의 어원인 'soci'는 'companion'으로 '동료', '벗', '동행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com'은 '함께' 'pan'은 '빵'을 의미하며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구(食口)와 같다. 즉, 모두 '함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말이자 공동체 Community를 뜻하는 말이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YWCA목적이기에 YWCA의 'A'를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Community)로 해석했다. 결국 YWCA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함께 먹고, 자고, 즐기는 밥상 공동체, 식탁공동체, 즉, 생활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잔치로의 초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잔치'로 비유한다. 이와 같이 성서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종종 하나님 나라가 잔치에 비유된다. 예수에게 있어서도 밥과 포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다.²⁾ 예수는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살았고, 그러한 잔치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 예수 또한 밥과 술을 함께 먹고 마셨다.³⁾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혼인잔치는 어떠한 잔치였을까?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그의 친구들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비유한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마련하였다고 보도한다. 이렇게 예수가 잔치의 중심이 되므로 잔치에 비유된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충만한 곳이다. 예수가 포도주를 공급해 주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는 곳이다. 잔치 중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참가한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나누는 곳이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곳이다.⁴⁾ 그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 받는 자들은 위로와 기쁨,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familia dei)이요 세계 공동체'⁵⁾이며 예수가 마련해주는 넘치는 새 포도주와 함께 풍성한 나눔이 있는 잔치이다.



로컬프렌들리: 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 운영사'

로컬프렌들리는 YWCA라는 시민단체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가능함에 대해 고민하며 초기교회공동체의 교제(행2:46)를 모토로 삼은 '커뮤니티'를 비즈니스로 창업에 도전했다. 주식회사의 '주식(株式)'을 '주식(酒食)'으로 바꿔 소개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가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비즈니스로 푼다. '환대'와 '휴먼터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한 끼를 빠르게 때우듯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식구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 같은 개념은 점점 흐려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는 경험은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즐기는 경험은 더욱 특별하고, 이것은 지역 생태계에서도 중요하다. 지역에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안팎으로부터 함께 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것이 곧 지역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자 근간이 된다고 믿는 이유다.


군산에 정착한 이후 4년간 로컬프렌들리는 군산의 청년 창업가, 예술가, 지역 사람들, 군산을 찾는 사람들을 접착제처럼 엮어냈다. 모두 함께 먹고 사는 방법을 궁리하며 얻은 결과다. 다양하고 단단한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은 결국 외지인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지역의 커뮤니

티와 분위기, 매력에 반한 분들이 다시 군산을 찾게 되고, 계속 군산을 찾을 수 있는 '완계 인구'를 만들어간다. '로컬프렌들리'라는 사업을 하며 우리만 반짝 잘되는 사업이 아닌, 관계성 속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즉 '순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함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 우리를 '동네 운영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회원공동체에서 열린공동체로

누가복음 24장 28~35절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은 함께 떡을 썰 때야 비로소 알아챘다. 즉, 부활한 예수는 사상이나 정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도 밥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곧 공동체이자 우리 YWCA 'A: 공동체'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열려있는가?

로컬프렌들리는 YWCA(회관) 밖에서 YWCA(가치)와 함께 지역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놀며 함께 4년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잔치를 만들었고, 그들을 잔치로 초대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 곧 나와 우리를 살리는 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로컬프렌들리의 공간에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렇게 우리의 '동료(companion)'가 되었다. 동료가 된 이들은 다음 잔치를 함께 준비한다.

박에스터 선생님은 YWCA는 건물도, 사업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여기서 'YWCA의 사람'은 YWCA 회원과 직접 참여하는 활동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YWCA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 YWCA가 이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 모두'⁶⁾를 의미한다. YWCA의 'A: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열린 잔치의 장을 마련하고 YWCA 예비 동료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야 한다. 

1) 한국YWCA연합회 공식홈페이지 한국YWCA 소개글 참고(<https://ywca.or.kr/about/koreaywca/>)

2) 박재순,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행복하다』, (서울: 천지, 1988), 224.

3)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눅7:34,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4) 김근진, 『예수의 종말론(2), 혼인 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새가정사, 『새가정』, 514호(통권47권), 2000.7, 30-31.

5) 박재순, 33. 6)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축제의 회복을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76.

“여성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의원에게 여가부폐지 저지활동 촉구 문자캠페인 참여 독려

|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11월 7일(월)부터 11월 한 달 간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기 위한 2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가부 폐지안 규탄 시위는 점심 시간 명동성당 앞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여성가족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문자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자캠페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는 캠페인으로,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52개 지역YWCA에서도 동참했다.

‘한국YWCA 20대 대선 정책의제’ 발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활동 적극 전개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YWCA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한국YWCA 20대 대선 정책의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관계자부터 인수위원장과의 면담과 인수위원회 앞 시위를 통해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4월 2일에는 인수위원회에 보다 확대된 성평등 전담부처 모델인 ‘성평등부’의 확대 내용을 담은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기능 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한국YWCA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연대 단위로 활동하며 9월 19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SNS 총 집중, 릴레이 기고 등에도 참여하였다.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에도 함께해

특히 10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후 더욱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여가부폐지저지 공동행동은 10월 11일에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여성들이 죽어가는 여가부 폐지가 웬말인가!-신당역 스톡킹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톡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긴급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및 지역YWCA는 11월 8일(화) 발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 진행

한편 11월 15일(화) 정오, 명동에서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주관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약 70여 명이 참여하며, 명동성당 앞 계단에서 시작 순서를 갖고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오늘 집회는 ‘지난 100년간 선배들이 걸어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눈물의 길인 명동길 위에서 다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수호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명동길에 섰음을 밝혔다.



여가부폐지 저지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보내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회원YWCA 건물에 현수막과 배너를 걸어 ‘여가부 폐지 반대’를 알렸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낭독했다. 성명서 낭독 후에는 퍼포먼스로 순서로 여성, 가족, 부, 폐, 지의 각 글자를 든 활동가들이 바닥에 글자를 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갔고,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를 들자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엄지척을 받았다. 가두 행진은 명동성당에서부터 시작하여 롯데백화점 길 건너-을지로 입구역-하나은행-페이지명동 방향으로 30분간의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주요 운동 과제로 삼고, 연대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국YWCA

자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7일부터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불평등과 혐오입니다’를 문구로 한 현수막 및 배너를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하여 총 34개 지역에서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여가부 폐지 반대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고양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가족과를 없애려는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성평등 전담부처의 유지 및 강화는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응답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의 지표이다. 앞으로도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키우자 Y다운 리더’, 그 10년의 시간

| 이은혜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1922년 설립 당시부터 청소년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온 명실상부한 청소년 단체 한국YWCA연합회가 청소년 대안 운동으로 세운 ‘키다리학교’의 운영 1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의 YWCA와 함께, 지난 11월 26일(토) 10시 30분 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Zoom)에서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란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업)지척! 키다리학교’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키다리는 YWCA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 지난 10년간 21개 지역에서 총 1,215명의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 영혼 모두가 온전히 조화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할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키다리학교가 “내실 있게 성장해나가며,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변을 밝히는 한줄기의 빛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부는 박운애 위원장(연합회 키다리TF)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키다리학교 창립 실무자와 청소년 운동의 기획자, 활동가들이 2012년부터 시작된 키다리학교의 10년 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키다리의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키다리학교 10년, 돌아보기> 순서에서 박은실 국장(한국YWCA연합회)은 ‘YWCA키다리학교, 10년, 또 다시 10년’을 주제로 발제하며, 키다리학교 창립 의미에 비추어 키다리 10년의 유산을 정리하였다. 그 유산은 곧 ‘Y다운 리더’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키다리학교는 곧 ‘Y는 사람이다’라는 명제 속에서 ‘Y리 더쉽(비전, 팀, 실천 리더십)’ 승계를 위해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회원조직으로서, 실제로 키다리 청소년과 운영진은 키다리 활동을 통해 성장하여 ‘키다리학교’와 더 나아가 ‘한국YWCA의 Y-틴 청소년 운동’, ‘YWCA의 청년운동’을 이끌며 YWCA 운동의 단단한 기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 박 국장은 리더십 아카이빙, 동창모임 개최, 또래 후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키다리학교, 앞으로 앞으로> 순서에서는 가장 먼저 권예은 청년활동가(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가 #Change’라는 제목으로 군산 지역 사회 청소년 자치활동 ‘달그락달그락’ 활동을 소개하며 청소년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유기적 연결망 형성을 제안하였다. 권 활동가는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 사회 역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간 엄윤미 이사(도서관문화재단 씨앗)는 ‘실험과 기획, 디테일이 건네는 것’의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프로젝트인 ‘스페이스 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험적 공간과 콘텐츠 운영을 위한 세밀한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엄 이사는 자신의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근거로,

키다리학교란 YWCA에서 운영하는 토요대안학교로서, 영, 지, 체가 온전히 조화를 이룬 청소년 리더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치와 실천’으로, 키다리학교의 교육 과정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결정된다. 키다리학교에서는 교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운영에 참여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모두 키다리학교의 배움의 주체로서 활동한다.



①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참가자
② 1부 진행사진
③ 2부 진행사진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향과 특징이 모두 달랐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활동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교수(서울과기대)는 ‘너의 목소리로 세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편히 할 수 있을 때, 다른 주제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김 교수는 안전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교육하고 있는 미국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네러티브4’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2부는 <우리들의 이야기> 라는 주제 아래, 박민경 청년(대전YWCA 키다리 졸업생)의 사회로 현 키다리 청소년과 운영자, 졸업생이 발제자로서 자신들의 성장 경험을 나누었다. 이채은 청소년(부산YWCA 키다리), 홍다은 졸업생(순천YWCA), 송소연 졸업생(청주Y)은 각각 개인의 리더십 성장

경험, 봉사 활동의 관점 변화, 현 직업과 키다리학교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오대근 팀장(대전YWCA)은 ‘크쌈(키다리학교 활동가의 별칭)도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Y-Place’란 제목으로 대전YWCA만의 키다리 프로그램 ‘올빼미’를 소개하고, 연차별 운영 상황의 변화를 나누며 운영진들에게 실질적인 운영 지혜를 나누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키다리의 유산은 사람에 대한 폭넓은 애정과 이해였으며, 이들은 모두 그 이해가 곧 키다리에서 만난 사람, 관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한편, 심포지엄의 사전행사로는 ‘키다리 네 컷 사진전’이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9개의 회원YWCA가 ‘키다리학교’라는 주제로 35개의 작품을 제출하였다. 키다리 네 컷 사진전은 현재 키다리연합 인스타그램(@y_kidal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의 힘,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김중미 작가, 젊은지도자상 노영선 교수 선정

I 글·편집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23일(수)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대상은 아동문학가인 동시에 지역운동가로서의 작가의 입장을 작품에 반영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지역운동에 대한 이해 및 가치 확산에 기여했으며,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중미 작가가, 젊은 지도자상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효과적인 응급구조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노영선 서울대병원 교수가 선정되었다.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력을 발굴하여 여성지도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차세대 여성지도자에게 도전 의식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2003년 제정되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그간 46여 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하여 격려해 왔다.

김중미 작가, 작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적인 삶 실현

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김중미 작가는 2000년도에 인천 동구 만석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팽이부리말 아이들>을 펴냈으며, 이 소설은 그해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천의 '팽이부리말'을 배경으로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린 소설이다. 김중미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김중미 작가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기까지 동두

천에서 지내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인천 지역 활동과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만나고 빈부 격차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고민은 심화되었고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지역에서 공부방을 열고 지역의 노동자와 도시빈민, 청년들이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왔고, 가난한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기차길 옆 작은 학교의 큰이모이자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이제는 공부방에서 함께한 아이들이 자라 다시 공부방에 돌아와 또 다른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되어 그들의 아이가 공부방에서 엄마, 아빠와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 강화도 양도면으로 귀농해 '기차길 옆 작은 학교'의 농촌공동체를 꾸려가며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중고생을 위한 공부방을 열고 있다. 작가는 강화도와 만석동을 오가며 여전히 공부방 큰 이모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활동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을 통해 여성, 인권, 노동, 성평등 등 차별과 혐오 속에서 연대하며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노영선 교수는 국내 첫 '달리는 중환자실'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 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이끌어내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노영선 서울대병원 교수, 학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 효과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공헌

노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석사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에 2년간 학생회장을 지내며 의학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문제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내왔다.

'달리는 중환자실'의 경우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30여 가지의 의료장비가 그대로 구비된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다. 따라서 1대당 운영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나, 이 시설을 운영하며 살려내는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결코 큰 예산이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국회의원과의 의원들에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설득하여 이뤄낸 결과였다.

의학자로서의 본연의 역할 외에도 연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쉬는 날도 없이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직접 쓴 논문으로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 수상소감
김중미 작가
저는 천주교도시민회를 통해서 빈민운동을 시작했지만 저를 지금까지 여기에 있게 해준 사람들은 저희 공부방 엄마들이었고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저보다 훨씬 어린 엄마들, 먼 타국 땅에 와서 여성 노동자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이주엄마들도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저를 계속 작가로 살 수 있게 해준 이 자리에는 없지만 청기와 낮은산의 여성 편집자들, 제게 아주 소중한 파트너이고 또 길잡이였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인 공부방 아이들, 청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힘으로 살 수 있게, 곁에 있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겠고 또 글을 쓰겠습니다.

젊은 지도자상 수상소감
노영선 교수
100주년을 맞는 YWCA의 20번째 여성지도자상 중에 젊은 지도자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제가 과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중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재난의료 지원팀(DMAT)으로 현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여러 선배님들과 또 동료들과 후배들이 같이 노력해 주셨고, 제가 대표로 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로 외치는 탈핵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고통과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성과 위험을 무시한 것이며, 부산뿐만 아니라 고리핵발전소 단지가 인접해 있는 울산, 경남 등 8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담보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_ 성명서 중

“청년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무수한 핵폐기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노후된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 땅에 탈핵이 이뤄질 수 있길 간구합니다.” _ YWCA 청년위원회 활동가의 기도 중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 보이고 절망스럽지만 하여도, 슬픔에만 빠지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을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생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_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중 / 김해YWCA 활동가 대독

“얼마 전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장에서는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언제나 국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배제되고, 정부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폭력에 반드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_ 부산탈핵시민행동 김현욱 활동가 현장 말씀 중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피폭자의 얼굴로, 기후재난으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의 모습으로, 기후위기 속 더 가중되는 고통에 내몰리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한 얼굴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_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임지희 활동가 현장 말씀 중

“우리가 멈춘다, 고리2호기!” “우리가 막는다, 핵폐기장 건설!” 11월 28일(월) 오전 11시 부산 시청 앞에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광주, 김해, 마산, 부산, 사천, 양산, 여수, 울산, 진해에서 모인 YWCA 활동가와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경남탈핵시민행동, 부산탈핵시민행동의 활동가들의 외침이 있었다.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11월 예배를 주관한 한국YWCA연합회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장 임시 저장시설 계획이 추진 중인 부산을 YWCA의 시급한 현장으로 인식하고 이곳에서 현장예배를 진행한 것이다. 현 정권의 주력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핵발전은 상시적 피폭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폭우


와 산불 등 갈수록 심해져 가는 기후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과 대책없는 처리장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핵발전소 지역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의 위험까지 떠안아야하며, 지역은 서울 경기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YWCA 부산 탈핵 현장 예배는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며, 기획에는 YWCA RE100위원회 구미정, 이영미 위원, 부산YWCA 여진경 부장, 허유림 간사, 청년위원회 조은지 부회장, 김예지 청년이사, 그리고 연합회 실무자가 함께했다.



“우리가 멈춘다, 고리2호기”, “우리가 막는다, 핵폐기장 건설”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고통과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사)부산YWCA 김문진 회장과 청년위원회 조은지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YWCA 부산탈핵현장예배는 서울, 청년, 핵발전소 지역, 기독교인의 자리에서 나아오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졌고, 김해YWCA와 (사)울산YWCA활동가들은 구약성서의 십브라와 부아 이야기, 신약성서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대독하였다. 성서 말씀에 이어진 현장 말씀으로는 부산YWCA가 작성하고 예배참여자간 연대한 성명서가 낭독되었고, 부산탈핵시민행동 김현욱 활동

가,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임지희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다. 예배 참여자들은 핵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상징물에 안전제일 마크를 붙였고, 함께 찬양하며 부산시청 일대를 행진했다. 그리고 탈핵으로 안전사회를 구축하자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예배는 폐회없이 마쳤다. 11월 예배를 진행했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고통과 눈물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YWCA의 발걸음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법

| 조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부회장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22일(목) 저녁 6시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세 번째 사람책방을 진행했다. 이번 편은 페이지 명동 건물에도 있는 '히즈빈스' 카페의 임정택 대표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2월에 걸맞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김예지, 서다미 대학청년Y 회원들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2021년 12월부터 이어온 사람책방은 2022년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청년참여단을 기획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한, 청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해 온 기념사업이다. 첫 번째 사람책방은 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인 김초엽 작가와, 두 번째 사람책방은 YWCA에서 오랜 활동을 해온 '질문 빈곤 사회'의 강남순 작가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책방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히즈빈스 대표와 진행하며 사람책방이 마무리 되었다. 세 분의 생애와 가치관을 듣고 질문하며 많은 청년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고, 힘과 용기를 얻어갔다.

히즈빈스의 소개 영상으로 시작된 세 번째 사람책방의 주인공 임정택 대표는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사회 혁신 기업 '항기 내는 사람들'의 커피 브랜드 '히즈빈스'의 대표이자, 카페, 컨설팅,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인력 추천, 모집 대행, 직무 개발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책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편견을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편견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사람책방의 첫 번째 파트는 '지금의 내가 있기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임정택 대표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

기는 대표님의 가치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영향을 많이 받은 멘토,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화한 과정, '히즈빈스' 이름의 뜻, '히즈빈스'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함께 나눴다. 임정택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머릿속의 장애인은 어렸을 때 특수반에 있었던 친구,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친구 정도의 생각이었으나 직접 만나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웃고, 듣고, 놀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다. 알고 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보다 순수하고 남을 생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편견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히즈빈스'의 스토리가 시작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는 주변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지, 그 마음을 묻고 듣고 답하는지, 그 사람의 강점을 바라보는 지에 대해 물으며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워 줬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 '기버'가 필요한 시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파트에서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임정택 대표는 'Give and Take(기브앤테이크)'책의 '기버', '테이커', '매치'의 3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기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버'의 사람은 내가 받은 것들보다



히즈빈서 카페 임정택 대표와 함께.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 '기버'가 되자는 임대표.


남들에게 많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자본주의 논리라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준다면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였다. 또한 '기버'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내가 먼저 '기버'가 되어 다가가 말을 건네고 될 더 주려고 하는 기쁜 마음을 베푼다면 소통과 사랑을 넘어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며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은 어쩌면 크고 복잡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임정택 대표는 장애인 고용 문제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2023년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 세계 10억 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강점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히즈빈스의 이야기를 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스토리와 꿈을 직접 이야기하고 온라인에서 더 많은 콘텐츠들을 활성화시켜 많은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시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확산시

키고 싶다."라고 전했다.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한국YWCA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YWCA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함께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YWCA가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YWCA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미션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라고 적혀있는데 얼마 전 해리 킴이라는 목사님께서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모두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생각만 하는 것은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 중 이 지역 여성들 이든 젊은이든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12월 23일(금) 서울YWCA 강당에서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가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수상작에는 △대상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최우수상 ENA/(주)에이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수상(성평등 부문) 한국일보 PRANX허스토리 '여자를 돕는 여자들' △우수상(생명 부문)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 △우수상(정의·평화 부문)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등이 선정됐다.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우수상(청년 부문) MBC충북 '어스온어스(Us on Earth) 등이 선정됐다.

지난 10월 7일(금)부터 홈페이지와 방송 제작사 추천공문 발송으로 공고를 시작해 미디어방송계, YWCA회원, 청년 회원, 일반시민 등에게서 후보작을 추천받아 성평등 부문 15편, 생명 부문 11편, 정의·평화 부문 12편, 청년 부문 9편 총 47편이 접수됐다. 이번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 과정은 전문심사위원 7명, 청년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김은주)의 1차 서류 심사결과를 토대로 YWCA청중 문자투표를 거쳤다. 이후 2차 최종 심사를 통해 올해의 수상작 총 6편(우수상 4편, 최우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상단 왼쪽: 성평등 우수상 PRANX허스토리팀. 상단 오른쪽: 생명부문 우수상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팀.
하단 왼쪽: 정의평화 우수상 MBC 제작팀. 하단 오른쪽: 청년부문 우수상 MBC 충북 어스온어스팀.

성평등 부문 우수상 한국일보 '여자를 돕는 여자들' 생명 부문 우수상 TBS '사계 2050, 서울'

성평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일보 PRANX허스토리 '여자를 돕는 여자들'은 개척자 여성들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적여 프레임이 아닌 여성들 간의 연대를 드러내기 위한 기획 의도가 삶에서 기억하는 여성 연대 경험을 통해 설명돼 시청자의 공감도를 높였고, 가족 내 삶과 관련된 일화들이 여성의 전문성과 충돌하는 지점도 다뤄 여성의 삶의 복합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자를 돕는 여자들'의 공동 제작자 이수연 PD는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동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들이었고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추운 시기다. 연대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목소리를 누르려는 시도를 이겨내고 계속 목소리 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을 받은 TBS '사계 2050, 서울'은 클래식 음악으로 기후재앙인 현실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한 점과 음악가와 기후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TBS '사계 2050, 서울'의 강민아 연출은 "2050년 버전의 사계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느꼈던 혼란스러움과 당황함은 잊히지 않는다"며 산업화 이전 비발디의 사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지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낮은 곳부터 무너질 것이다.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 MBC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을 받은 MBC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는 기차역과 도시, 명승지, 음식 등을 간접 체험하고 삶의 단편들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고, 남으로 남한과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가 이어지는 날을 그리며 통일을 꿈꾸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영상기록,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의 김명환 연출은 "현재 우리는 평화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거기에 사람이 달리고, 화물이 달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간다면, 대한민국은 섬나라가 아닌 진정한 반도국가, 그리고



왼쪽 : 대상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팀. 오른쪽 : 최우수상 (주)에이스토리 우영우팀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륙을 바라보는 미래의 희망과 평화가 구현되리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상상력의 공간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부문 우수상 MBC충북 '어스온어스'

청년 부문 우수상을 받은 MBC충북 '어스온어스'(Us on Earth)는 국내외 여행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 우정, 환대로 연결되는 지구 세대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충북 '어스온어스'의 김우림 PD는 "저희 제작진 스스로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느낀다. 저희끼리는 '나 예전처럼 정말 달라졌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이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좋은 상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봐 주시고 즐겨줘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ENA/(주)에이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우수상을 받은 ENA/(주)에이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공론장을 마련했으며 주류와 정상성의 기반 위에 그려졌던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세원 PD는 "각 제작진의 모든 파트의 분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단순한 소재나 캐릭터 설정으로만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조명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노력을 높이 사 주시고

소중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드라마를 보고 시청자들이 건강하고 건설적인 담론을 만들어 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 EBS 다큐프라임

'여성 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대상을 수상한 EBS 다큐프라임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남성이 써내려간 역사 속에 묻혀진 여성들을 발굴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이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억압받고 자취를 감추게 됐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재현을 통해 충실히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백년사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의 이해진 PD는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인 2022년에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의 대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더 크다"며 '여성백년사'는 100년 전 여성들이 받았던 차별과 폭력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또 지금의 우리의 작은 노력과 연대 움직임이 10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제작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된 것 같아 굉장히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1996년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 제작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제정했다. 2020년인 제24회부터는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상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대전환 가볍고 힘있게 달리기 위한 자이언트 스텝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거대한 조직의 거대한 전환

제트스키 혹은 모터보트를 타본 적이 있는가. 제트스키는 몸집이 작아 속도가 빠르고 방향 전환이 쉽다. 좌회전, 우회전, 심지어 덩블링까지 키를 쥔 사람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반면, 항공모함이나 거대한 유조선, 크루즈 같은 배들은 몸집이 커서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런 큰 배들에는 보통 선장, 항해사(1등, 2등, 3등), 조타수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다. 조타수는 항해사,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방향을 틀지 말지 결정하고 전체 배를 지휘·통솔하는 것은 선장의 일이다. 즉,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가 몸집이 작은 제트스키와는 완전히 달라 의사결정이 더딜 수밖에 없고 방향전환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신력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시민운동 단체인 한국YWCA연합회(이하 '한국Y')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조금 더 "가볍고 힘있게" 달리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재구조화를 단행하였다.

조직 재구조화 방향과 거버넌스 변화

한국Y 조직 재구조화의 큰 방향은 '한국YWCA창립 100주년 비전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창립정신과 정체성을 잃은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목적에 맞춰 조직을 재정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조직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한국Y에도 목적은 조직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자 지속가능해야 할 이유이다. 목적을 다시 세우는 과정

에서 거버넌스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거버넌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과정을 포괄하는 일련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한국Y 조직 재구조화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에 있는 회원Y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확보하고 지역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Y를 재구조화하고, 이원화되어있던 결정단위와 책임단위 구조를 법인이사회로 일원화하며, 총회와 법인이사회 조직에 지역과 청년대표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부회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역성, 청년성을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하였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재)빈손채움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의 의뢰로 한국Y의 거버넌스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Y의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보인 거버넌스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거버넌스 특징 그리고 곳 거버넌스 성공요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조직 재구조화 과정을 둘러싼 조직 현황 및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실무 의사결정그룹과 개별 혹은 집단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사회 회의운영 및 회의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영상기록을 관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질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설문을 설계하여 구조화된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Y만의 거버넌스의 특징은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암묵지의 표출화, 형식지의 체계화

한국Y는 조직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 총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개인 활동가가 습득한 혹은 조직문화 안에 내재된 경험과 지혜, 감(感)을 끄집어내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로 표출화하고 기존의 명문화된 규정들을 서로 연결하고 체계화하는 등 대대적인 형식화 작업을 수행했다.

② 이사회와 사무국의 관계 전환: 관리형에서 협력형으로

한국Y는 현재 조직생애주기상 성숙기에 머물러 있으며, 초기부터 재구조화 이전까지 오랫동안 이사회 중심 모델이 강하게 자리 잡아 왔다. 한국Y는 특히 기독교신앙 아래 한마음 한뜻을 가진 원팀으로서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사,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등의 역할과 거버넌스와 경영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조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온 성공경험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한국Y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조직 재구조화라는 담대한 결정을 통해 성숙기에서 쇠퇴기가 아니라 재활성화기로 재도약하려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인 이사회 개편 및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중심의 관리형에서 협력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③ 목적에 집중하는 정책기반 거버넌스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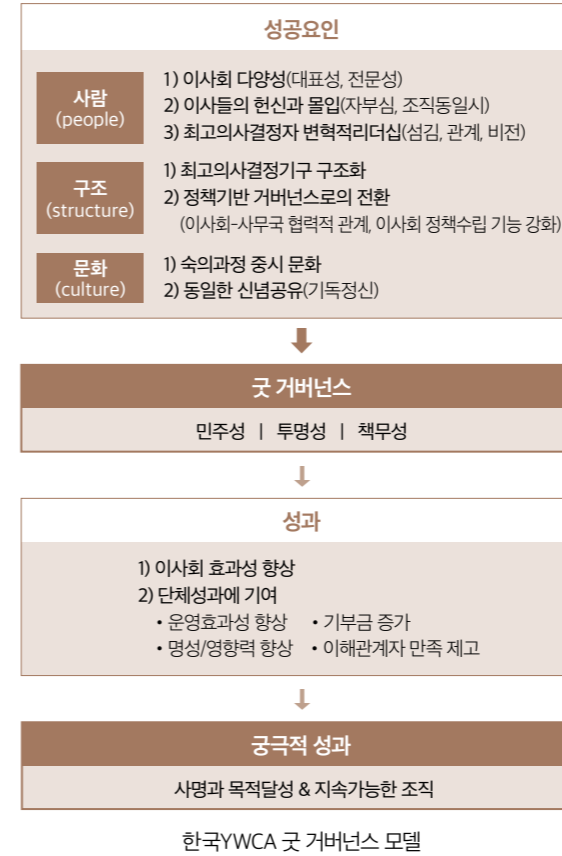
모든 조직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목적의식은 조직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사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단체의 목적과 비전을 수립하는 일이다. 한국Y는 창립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기여가 컸다. 정책기반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되는 긍정적 경험을 이사회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④ 생동하는 이사회를 위한 파괴적 혁신

이사회 효과성을 위한 최적의 해법은 적합한 사람을 태우는 것이다. 임기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 없이 오랫동안 한국Y 이사회활동을 해온 고령의 이사진은 조직을 지탱하는 영향력 있는 고유역량임이 자명하지만 시대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량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한국Y는 법인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 혁신을 감행하였다. 회원Y와 청년대표 비율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연합회 8명(청년 1명 포함), 회원Y 8명(청년 1명 포함), 청년 4명으로 구성(전체 이사 중 청년이사 비율 30%)하고, 역사 이래 처음으로 35세 이하 청년부회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청년대표 비율 확대는 한국Y가 선언적 차원에서 청년성 회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Y의 운동과 구조 속에 실제로 청년의 자리를 마련하고 청년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혁신적인 정책이다.

좋은 거버넌스에는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양질의 숙의과정(Deliberation Process)이 담겨있다. 변화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겠다는 운영원칙을 가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분하게 숙의과정을 거쳤다. 이사회와 사무국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Y,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TF와 위원회 구조를 통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었고 이사회와 사무국 간, 연합회와 회원Y 간 참여자 간 상호신뢰와 상호학습을 촉진해 숙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서 합의형성에 이를 수 있었다.

한국Y가 생각하는 굿 거버넌스는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운영과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며(민주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투명성), 의결기구와 실행기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회의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수행과 평가, 실정법상 자격 있는 구성원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였다(책무성).

한국Y가 굿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었던 7가지 성공요인은 이사회 다양성, 이사들의 헌신과 몰입, 최고의사결정자의 변혁적 리더십,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조화, 정책기반 거버넌스로의 전환, 숙의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기


독정신이라는 동일한 신념의 공유라고 볼 수 있다.

한국Y의 거버넌스 변화가 단체성과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실증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점선을 실선으로 만들어 갈 과제가 이사회 앞에 놓여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굿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열정적이고 자질 있는 이사들이 있고, 좋은 구조와 문화를 갖춘 한국Y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단체성과에 이바지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사회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내자(Pathfinder) 역할을 한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여 건강한 거버넌스가 유지될 때 조직은 험난한 변화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고 유명할 수 있다. 재구조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변화는 의사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여 이사회 효과성을 향상하고, 이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단체 성과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국YWCA 목적과 비전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향한 여정

한국Y는 새로운 100년을 더 가볍고 힘있게 달리기 위해 조직 재구조화와 거버넌스 대전환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향후 3-5년은 현재의 변화를 조직에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지만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계속된다. 이사회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직에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불어넣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법인 이사회는 법인 차원에서 이사회 전형(典型)을 만들어 가야 하고, 전국에 있는 독립법인화한 회원Y들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굿 거버넌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Y 거버넌스 대전환은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다. 아직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한국Y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한국Y만의 이상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운동'은 운동을 살리는 '모금'을 이끈다

| 최유주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모금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회원YWCA의 온라인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YWCA 온라인모금 워크숍'을 11월 30일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모금과 관련된 강의와 중점운동 주제별 소그룹 모임 및 도너스 온라인모금함 제작 등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YWCA 온라인모금 워크숍'이 회원/후원관리 프로그램인 도너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 16개 회원YWCA의 실무활동가 23명이 참석하여 온라인모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는 YWCA의 후원/회원정보를 민들레넷에서 도너스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도너스 박찬진 팀장도 참석하여 회원YWCA의 현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과 모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과 박은실 기획조정국 국장이 참석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운동 주제별 소모임은 연합회 RE100팀 유에스터 간사(기후위기대응), 이은혜 간사(청소년), 이한빛 간사(성평등)와 함께 인트라넷팀의 돌랍수련 간사, 이에림 간사와 최유주 간사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1부 - 오픈강의 'YWCA운동 확산과 온라인모금'

워크숍의 1부는 'YWCA운동 확산과 온라인모금'을 주제로 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의 박동순 국장의 강의로 시작됐다. 박동순 국장은 강의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기부금 관리에 주의해야할 점을 소개했다. 현재 한국YWCA 재구조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며, 운동이 살아야 운동을 위한 모금이 가능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기부문화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YWCA도 이러한 환경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모금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했다.

2부 - 운동 주제별 소그룹 모임

강의 후 이어진 2부에서는 회원YWCA가 사전에 선택한 '기후위기대응, 성평등, 청소년' 운동 주제별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됐다. 회원YWCA에서 사전 과제로 해온 온라인모금 계획과 모금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과제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기후위기대응 조

현재 전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문제는 모금에 있어서도 관심을 일으키는 주제이다. 회원YWCA는 각 지역의 환경 문제와 연결시켜 모금 콘텐츠를 만들었다. 피드백을 통해 운동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슈를 논의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기후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를 공유하는 등 모금 콘텐츠

- ① 1부 오픈강의 'YWCA 중점운동 확산을 위한 온라인모금'
- ② 2,3부 운동 주제별 소그룹 모임
- ③ 8층 YWCA역사전시관 군산 화재참사 전시 관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 조

성평등 주제는 YWCA의 중점운동에서 모금이 꼭 필요한 운동이다. 소그룹에서는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모금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회원YWCA의 과제 공유에 이어 성평등과 관련하여 외부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성평등 모금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조

청소년 주제는 회원YWCA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중점운동 주제로, 현재 YWCA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모금 콘텐츠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모금과 소외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톡톡 튀는 모금 콘텐츠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3부 - 도너스를 활용한 온라인모금함 제작

이어진 3부에서는 2부에서 각자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직접 도너스 온라인모금함에 옮겨서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트라넷팀은 온라인모금함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온라인모금함 화면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각 회원YWCA의 문의에 응대했다.

3부 시간을 마치고, 회원YWCA 실무활동가들은 한 자리에 모여 당일 제작한 온라인모금함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다. 이로 인한 모금 방식의 변화는 YWCA의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라인모금은 YWCA운동 확산을 위해 꼭 해내야하는 과제인 만큼 이날의 워크숍이 첫 걸음이 됐다고 본다.

|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 |

여성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명동 길 위에 섰습니다. 이 길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땀과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성평등을 지우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YWCA와 한국YMCA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지난 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외치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OECD 성별임금격차 꼴찌, 유리천장지수 꼴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윤석열 정부 여성장관 비율 16.7%. 이 수치가 보여주는 구조적 성차별,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고위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금아금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에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가족과를 없애고 관련 정책들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성평등을 지우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내미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동에서, 대한민국에서 청춘을 바쳐 일궈낸 국민들의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지지율에 따라 바꾸거나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이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전 세계는 공통의 약속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이 책임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 하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인식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 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등을 지우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 셋,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한국YWCA연합회 · 한국YMCA전국연맹

| YWCA 부산 탈핵현장예배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다

우리가 멈춘다, 고리 2호기! 우리가 막는다, 고준위 핵폐기장!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2022년 우리는 기후재난이 우리의 논과 밭, 직장과 집을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산불이 핵발전소를 위협하고, 폭우는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최강국건설'이라는 상식 밖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다. 산불, 지진, 폭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 취약한 핵발전은 지역에 상시적 피폭의 위험을 안기고, 핵발전소 지역 여성들을 갑상선 암에 노출되게 하며, 더 이상 저장할 곳도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계속 생산해낸다. 우리 현재세대와 다음세대는 가능할 수 없는 기후재난 뿐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의 책임까지 온통 떠안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상식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일찍이 부정의한 핵발전에 반대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에 동의하는 여당, 야당, 진보정당,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교계, 학계를 두루 아우르는 121개 단체 연대체인 '고리 1호기 폐쇄 부산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를 발족하여 2015년 고리1호기 폐쇄의 성과를 거둔 곳이 부산이다.

그럼에도 고리1호기를 비롯하여 신고리5, 6호기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부산시민들은 늘 가슴을 졸여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한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정전사태, 불량·위조 부품 사용, 고리2·3·4호기의 디젤 발전기 고장 및 수많은 원전 과도상태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침수 등 1·2·3차 계통 전반에 걸친 수많은 사건·사고는 부산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2023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인안전성평가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제출한 후 뒤늦게 줄속으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로 2030년 핵발전 비중을 32.8%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고리3호기와 4호기도 수명연장을 위한 서류를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고리2호기를 비롯해 18기의 노후 핵발전의 수명연장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부산시 원자력안전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설계수명 연장은 금지되어있으며 설계변경 및 방폐물 처리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있음에도 중앙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고 부산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수원은 10월 28일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였다. 영구방폐장이나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시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으로 가겠다는 의도이며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확보하여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고리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명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중대사고, 방사선 피해, 지진 등에 제대로 대비도 없이 진행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성과 위험을 무시한 것이며 부산뿐만 아니라 고리핵발전소 단지가 인접해 있는 울산, 경남 등 8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담보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고리1호기를 폐쇄하였듯, '원자력 최강국 건설'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2호기 폐쇄 및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 핵폐기장 반대를 외친다!

2022년 11월 28일

YWCA 부산 탈핵현장예배 참여 단체

광주YWCA,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김해YWCA, 마산YWCA, 부산탈핵시민행동, 부산YWCA, 사천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진해YWCA, 한국YWCA연합회, YWCA청년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숲과 일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원전 최강국' 밀어붙이는 정부, '안전 취약국'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기에 달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 핵폐기를 임시 처장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시된 전력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산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1년 아직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식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과 국민 희생을 담보한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핵발전으로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합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는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지금도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고위험과 지역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핵발전에 대한 전쟁과 테러 위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군대가 핵시설을 점령하고 포격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핵재앙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발전은 2030년까지 감축잠재량이 불과 1Gton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감축 잠재량이 4Gton을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핵발전은 끊임없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20년에 핵발전 비용은 33% 증가했고, 풍력과 태양광발전 비용은 각 70%, 90% 감소했습니다.

다시,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0월, '질기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탈핵을 요구하는 338,147명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서명은 대통령의 탈핵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탈핵 선언에만 그쳤을 뿐 결국 탈핵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가치인 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핵발전 확대가 아닌 안전의 확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100만 서명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2023년 3월 11일까지 10만명,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명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각 목표기간에 따라 달성한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 거점에서 서명 캠페인을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교육,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함께 우리의 요구에 공감하는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2022년 12월 8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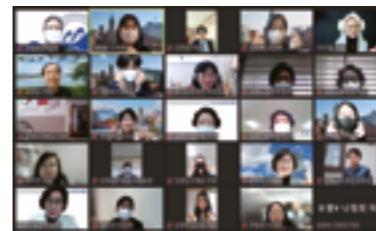
강서아이클생협, 거례의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명중반란기물리, 법상평화포럼, 부산에너지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생태로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비너루없는정행, 동학소년회 지구소년단, 안동환경운동연합, 종량마을넷,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심수녀회, 신대승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더30km포럼, 월성원전안전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천도교한민연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총부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비음실천행동, 탈핵에너지안전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전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C분과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라아이클생협, 한살림경주,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일반핵평화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재 70개 단체

11월 월례아침기도회



11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1월 1일(화)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사)한국YWCA연합회 여성신학위원회 위원이자 움트다연구소 대표로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창조적인 여성주의 예배를 이끌고 있는 전수희 목사가 출애굽기 27장 19-21절 말씀을 통해 '세련된 자매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또한 10.29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생존했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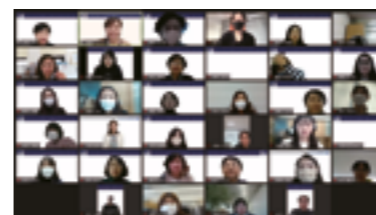
2022년 4분기 지역법인승인신청 회원Y 온라인간담회



2022년 4분기 지역법인승인신청 회원 Y 온라인간담회가 11월 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주, 마산, 거제, 포항,

의정부YWCA 5개 Y를 대상으로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26일(수) 1차 온라인간담회로 진행 된 진해, 사천, 동해, 김해YWCA 4개 YWCA를 포함하여 2022년 4분기에 지역법인승인신청 한 9개 회원YWCA의 온라인간담회가 마무리 된 것이다. 온라인간담회에서는 법인이사회 책무성, 본부의 지역운동성 및 법인운영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연합회 지역법인승인지원TF 위원과 회원Y 등기이사가 함께 점검하고 법인화를 준비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제5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11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제5차 YWCA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마지막 회차인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기후운동 만들기'를 주제로 '탈성장파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강의와 권역별 토론 시간으로 구성되

었다. 콜로키움 1부는 김현우 소장의 '기후위기를 다루는 운동과 화법' 강의가 진행되어, 국내의 기후운동의 흐름을 알아보고 지역에서 기후운동을 조직하는 방법과 메시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부 권역별 토론은 총 4개 권역으로 흩어져 진행되었으며 2023년 각 회원Y별, 권역별 기후운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각 권역에서는 채식조례제정, EM활용, 지역별 기후운동 조직 등의 의견이 공유되었다. YWCA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의 강의와 자료들은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법인이사 연수



11월 4일(금)-5일(토)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워크숍'을 가졌다. 박운애 이사의 진행으로 이사들 간 상호 이해의 시간과 '2023년도 사회환경 변화와 YWCA 과제'에 관한 구정혜 상임이사의 발제를 토대로 한 2023년도 사업 계획 방향 논의 시간을 가졌다. 2023년 한국YWCA 사업 키워드로 지역운동, 청년운동, 지속가능성이 제안되었다. 두 번째 워크숍은 '청년이사 뒤편끈대'라는 제목으로 김예지 청년이사가 진행하였는데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YWCA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지침과 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회 십계명을 정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다짐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11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41개 회원YWCA 및 2개 회원YWCA 부속시설, 전국 650여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출범했다. 전국 여성, 노동, 시민, 인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발족식에서는 10인의 참가 단체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원스님, 녹색연합의 임태영 조직팀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젠더폭력 근절을 강조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청년포럼



11월 11일(금)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청년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청년포럼은 전북 군산

YWCA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YWCA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되었다. 청년포럼에서는 로컬 프렌들리 3개년 사업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새로운 지역에서의 지역운동의 실행방향에 관해 발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로는 충남대학교 운주선 교수, 언더독스 이슬기 디렉터, 로컬프렌들리 김수진 대표, 더함 김준호 이사, 빌드 임효목 부대표, 한국YWCA연합회 이은영 부회장이 발제하였다. 청년 창업과 지역운동,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발제와 더불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군산에서 시작된 로컬프렌들리 사업을 정돈하고 새로운 지역에서의 실행을 모색하며 청년포럼이 마무리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YMCA/YWCA 기도주간 연합예배 및 여가부폐지안 규탄 가두행진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세계 에큐메니칼 기독교청년 단체로 운동 방향성 공유를 위해, 매년 11월 중 공동 기도주간을 정하고 공통의 주제와 내용으로 기도하며 연합예배를 드려왔

다. 이 전통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도 함께 기도자료를 번역·배포하며 11월 15일(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의 공동주관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을 진행하였으며 약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가두행진 참여자들은 명동성당 앞 계단에서 시작 순서를 갖고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명동 일대를 돌며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렸다.

2023년 정전 70년 공동행동을 위한 워크숍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PA)을 비롯한 평화와 통일 관련 단체들은 지난 12월 22일(목) 오전 10시, 615남측위원회에서 2023년 정전 70년 공동행동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내년 정전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서명운동, 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월 22일(토) 토요일 전국 대규모 집중 집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7월 27일 3년간 1억인 서명운동을 목표로 진행해왔으며, 현재 국내외의 38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집행위원회 단체들을 확장하여 대규모 공동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YWCA 맞춤형 재구조화 지원교육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2020년부터 회원Y의 재구조화 방향과 교육 대상에 따라 회원YWCA 맞춤형 재구조화 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조직혁신지원국에서는 11월 21일(월) 광명YWCA 회관에서 광명YWCA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회원Y 재구조화 필요성과 이사회의 과제 및 재구조화 준비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11월 24일(목)에는 익산Y실무활동가 대상으로 재구조화 지원 2차 교육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일(목)에는 평택Y의 자원·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재구조화 지원교육이 진행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52개 모든 회원YWCA를 대상으로 재구조화 지원교육을 완료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14개 회원YWCA 대상, 총 22회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회원YWCA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추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71회 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특별 순서로, 우크라이나 정교회 도네츠크와 마리우폴 대교구의 세르게이 대주교의 축사 및 한반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순례에 함께 헌신해 온 캐나다연합교회(UCC)의 패티 탈봇(Patti Talbot) 국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NCCK 신임회장으로는 강연홍(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가 선출되었으며, 안건으로는 제71회기 주요 일정, 제71회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와 지역협의회 일괄 가입, 교회고백문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 채택, 2023년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을 1923년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수, 제71회 총회선언문 채택 등이 다루졌다.

故 김영정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



故 김영정 명예연합위원의 추모예배가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명예연합위원, 실무자, 김영정 선생의 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김영정 선생님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회 김명수 목사가 누가복음 13장 20-21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차경애 명예연합위원의 기도, 한영수 이사장(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이 추모사를 낭독하였다. YWCA의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통해 여성운동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삶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추모 시간을 가졌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11월 23일(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2022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김중미 작가가 대상, 전문지식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공헌한 노영선 교수가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11월 26일(토) 10시 30분,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Zoom)에서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1부는 박윤애 위원장(연합회 키다리TF)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은실(연합회 국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키다리학교의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였고, 권예은(청소년자치연구소 청년활동가), 엄운미(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 김대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키다리의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2부는 박민경 청년(대전YWCA 키다리 졸업생)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키다리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채은(부산YWCA 키다리 청소년)과 졸업생 홍다운(순천YWCA 키다리 졸업생), 송소연(청주YWCA 키다리 졸업생), 그리고 키다리 운영자 오대근(대전YWCA 팀장)은 자신들의 성장 경험을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YWCA 부산탈핵현장예배



11월 28일(월) 오전 11시, 부산 시청 앞에는 광주, 김해, 마산, 부산, 사천, 양산, 여수, 울산, 진해의 YWCA 활동가와 기후위기교육교

비상행동, 경남탈핵시민행동, 부산탈핵시민행동의 활동가 50여 명이 모였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장 임시 저장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을 YWCA탈핵기후생명운동의 시급한 현장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 부산시와 정부에 탈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었다. 예배에서는 구약의 십브라와 부아,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담은 성경말씀, 성명서 낭독과 연대발언으로 이어진 현장말씀, 그리고 탈핵으로 안전사회를 구축하자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YWCA 여성신학아카데미



2022 여성신학 아카데미가 11월 18일(금)과 11월 29일(화) 양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독교여성주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생태신학까지 아우르는 <2022 여성신학 아카데미>에는 전국 회원YWCA 성평등운동담당 활동가와 회원 등 총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1월 18일(금)에 진행된 1강은 'YWCA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 여성주의(백소영 교수), 2강은 '성서 속 숨겨진 목소리(구아름 목사)'란 제목의 성서 해석에 대한 강의와 소그룹별 성서 해석 적용의 시간이 이어졌다. 여성신학 아카데미 2차시인 11월 29일(화)에 3강에서는 '여성들이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으며, 만들어 갈 하나님 나라(이주아 교수), 4강에서는 'YWCA 환경운동과 생태여성신학(김나경 목사)'와 여성신학 아카데미의 성평등운동 적용점에 대한 모둠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YWCA연합회는 운동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2023년에도 여성신학 아카데미를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된 강의는 추후 YWCA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

회원YWCA 도너스 온라인모금 워크숍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의 온라인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YWCA 온라인모금 워크숍'을 11월 30일(수)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모금과 관련된 강의와 중점운동 주제별 소그룹 모임 및 도너스 온라인모금함 제작 등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의 1부는 'YWCA운동 확산과 온라인모금'을 주제로 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의 박동순 국장의 강의로 시작했다. 강의 후 이어진 2부에서는 회원YWCA가 사전에 선택한 '기후위기대응, 성평등, 청소년' 주제별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되었다. 회원YWCA에서 사전 과제로 해온 온라인모금 계획과 모금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과제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2부에서 각자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직접 도너스 온라인모금함에 옮겨서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46쪽)

소비자의 날 기념식



제27회 소비자의날 기념식이 12월 2일(금) 오전 10시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한기정 공정위원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로 국무총리상에 광주YWCA 이용근 세탁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장에 목포YWCA 원정희 센터장, 목포YWCA 한추희 이사, 안양YWCA 이길동 세탁심의위원장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YWCA 대화모임

12월 14일(수), 2022년 마지막 세계YWCA 대화모임이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원영희 회장,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이한빛 간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대화모임은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감사를 나누고,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운동의 동력을 나누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각 YWCA 리더십들은 코로나19 대확산 이후에도 YWCA가 연대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에 감사를 전했으며,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했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올해 6명의 청년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세계YWCA 자매들에게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권력구조 변화를 일으켜 나갈 것을 격려했다. 2023년 11월에는 제30회 YWCA세계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계YWCA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평화 만들기: 한반도·동아시아의 위기와 희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설기관인 시민평화포럼 및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정책포럼 '평화 만들기: 한반도·동아시아의 위기와 희망'이 지난 12월 5일(월) 오후 4시 참여연대 및 유튜브에서 진행되었다. 이상성 한림대 명예교수의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유럽과 오늘의 동아시아, 그 유사성과 한반도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의 '미중 경쟁과 대만 문제의 현재와 전망'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의 '한반도 정세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가 있었다. 토론으로는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국장과 정옥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였다. 본 포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한겨레TV' 및 '참여연대'에서 시청 가능하다.

2022년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2차 정기총회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하반기 정기총회가 12월 8일(목) 제주 오

션스위즈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의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참여하여, 각 센터별 2022년 지역경제교육센터 사업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교육 실적을 공유하였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경기지역경제교육센터는 올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과 MOU 체결 및 수원구치소 형기종료 예정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2022 YWCA 성탄예배



YWCA 성탄예배가 12월 8일(목) 오후 2시에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성탄예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운주 목사가 마태복음 1장 18-23절 말씀을 통해 '블라디미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블라디미르'는 러시아어로 '평화로 통치하다'는 뜻이다. 또한 현장에서 노래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포크 음악가이자 목회자인 황푸하 목사의 특별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강원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함께라서 더 강한'이 12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이란 여성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 예멘 인권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등 세계 각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석하였다. 수상자들이 함께 하는 주요 마당인 그랜드 패널에서는, 시린 에바디(Shirin Ebody)는 60년 전 한국보

다 부강했던 이란은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였고,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이었으나 교육과 민주주의에 투자해온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리마 보위(Leymah Gbowee)는 2015년 국제여성평화대회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에 관한 왜곡된 관점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며 남북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YWCA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및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컨설케이션 미팅을 열었으며,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 서명을 위한 기자 회견을 진행하였다.

싱크머니 한부모캠프: 우리가족숨데이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싱크머니 프로그램의 올해 주요 사업 대상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싱크머니 경제교육과 우리가족숨데이(숨+STAY)캠프가 12월 17일(토)부터 1박 2일로 진행됐다. 싱크머니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착한기업가'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자녀의 부모들에게 자산과 부채관리에 관한 경제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참가했던 가정은 대상으로는 '우리가족숨데이(숨+STAY)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는 온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약 20여 개의 가정이 참여하였다.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 최종보고회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다. 6월부터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13개의 팀들이 각자 그동안 시도한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공유하며 열심히 달려왔던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1부에서는 최종결과 발표 및 시상식으로, 2부에서는 다른 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9쪽)

청년참여단 사람책방



한국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관점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책방 3차시가 12월 22일(목) 오후 6시에 열렸다. 첫 번째 사람책방은 김초엽 작가와, 두 번째 사람책방은 강남순 작가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책방은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님과 함께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임정택 대표님의 청년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함께 모인 청년들의 여러 대화가 오고 갔다. 이를 통해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청년세대라는 큰 틀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제 26회 좋은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23일(금) 서울YWCA 4층 강당과 유튜브 송출로 제26회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을 진행했다.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구 좋은TV상)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 제작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1996년 제정되었다. 올해에도 TV, 뉴미디어 매체 등에서 성평등, 생명, 정의평화, 청년 각 부문에서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을 구글폼을 통해 시민투표를 받았으며 11인의 심사위원을 거쳐 총 6편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EBS의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최우수상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성평등 부문 우수상으로 한국일보 <여자를 돕는 여자들>, 생명 부문 우수상으로 TBS 기후위기 특별기획 <사계 2050, 서울>,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MBC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청년 부문 우수상으로 MBC충북 <어스온어스(Us On Earth)>가 선정되었다. 시상식 영상은 한국YWCA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1~2022. 12. 30까지 / 약정포함 / 단위: 원)

후원종류	구분	금액	후원종류	구분	금액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	개인	152,923,600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개인	57,160,000
	회원YWCA	16,350,000		회원YWCA	17,200,000
	기업/단체	114,432,000		기업/단체	32,000,000
	소계	283,705,600		소계	106,360,000
합계		390,065,600			

1. 100주년사업 후원(농협 386-17-000052)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교자 명예연합위원	6,000,000	류인숙 재천YWCA 사무총장	200,000	장혜선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2,000,000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	1,000,000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권오형 연합회 감사	1,000,000	박종희 의정부YWCA 증경회장	1,000,000	故 주신애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권혜영 새문안교회 권사	1,000,000	박호권 한국YMCA연맹 국장	100,000	전배자 강릉YWCA 증경회장	100,000
김난주 연합회 위원	100,000	배윤례 하남YWCA 증경회장	100,000	전화성 후원회 이사	1,000,000
김말숙 인천YWCA 증경회장	100,000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50,000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50,000,000	이현순 부천YWCA 사무총장	50,000	정서연 연합회 팀장	100,000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100,000	송기영 법인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300,000	정유진 연합회 전 실행위원	200,000
김미애 연합회 팀장	100,000	신인숙 연합회 전 부장	200,000	정미숙 목포YWCA 회장	1,000,000
김미혜 연합회 전 부회장	200,000	신정연 하남YWCA 사무총장	100,000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50,000
김병찬/임정임 연합회 간사	200,000	신현채 수원YWCA 증경회장	300,000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	100,000
김성자 재천YWCA 증경회장	1,000,000	안재용 YMCA유지재단이사장	300,000	조연신 서울YWCA 부회장	1,000,000
김성희 예뽀톡 대표	100,000	연합회회장단 (원영희 조은영 이은영)	10,000,000	차경애 명예연합위원	2,000,000
김수연 연합회 팀장	100,000	오영란 연합회 전 실행위원	1,000,000	추순자 하대원 법무사 사무장	300,000
김숙희 100주년 공동위원장	3,000,000	오초녀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국장	50,000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최정숙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	500,000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00,000	최지영 연합회 팀장	50,000
김은경 연합회이사	1,000,000	이봉진,故 고의순 연합회 위원	1,000,000	최만자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김은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이순희 안동YWCA 회장	100,000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500,000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1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2,000,000	최형선 연합회 전 임원	200,000
김재신 연합회 감사	1,000,000	이연애 서울YWCA 증경회장	3,000,000	표대중 노무법인 김 대표	1,000,000
김재호 명예연합위원	2,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273,600	하선규 부산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주원 여성소비자연맹 사무처장	50,000	이옥신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허행여 남양주YWCA 증경회장	100,000
김진용 연합회 자문위원	3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3,000,000	함종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김태연 천안YWCA 증경회장	500,000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200,000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홍수진 연합회 팀장	100,000
김 형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혜련 연합회 부장	100,000	홍인숙,故 서희전	20,000,000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	임진영 연합회 부장	100,000	황혜숙 연합회 전 임원	10,000,000
노인자 인천YWCA 회장	200,000	장원자 전 수원YWCA 관장	100,000	박미옥,성효원,양서영,이예린,이서준,이은정,한민영	250,000
소계(95명)		152,923,600			

2) 회원YWCA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릉YWCA	100,000	(사)서울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
거제YWCA	300,000	사천YWCA	300,000	창원YWCA 이사회	500,000
고양YWCA	100,000	서천YWCA	50,000	천안YWCA	200,000
광명YWCA	50,000	성남YWCA	50,000	춘천YWCA	100,000
광양YWCA	100,000	속초YWCA	100,000	충주YWCA	200,000
(사) 광주YWCA	1,000,000	안동YWCA	100,000	통영YWCA	300,000
군산YWCA	300,000	안산YWCA	100,000	파주YWCA	50,000
김해YWCA	100,000	안양YWCA	500,000	평택YWCA	100,000
남양주YWCA	100,000	양산YWCA	300,000	포항YWCA	200,000
남원YWCA	1,000,000	(사)울산YWCA	100,000	하남YWCA	100,000
동해YWCA	500,000	원주YWCA	100,000	YWCA 전국증경회장단모임	5,000,000
마산YWCA	100,000	의정부 YWCA	200,000	2021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
부산YWCA	1,000,000	익산YWCA	100,000	2022 경상권역협의회 회장단	1,000,000
부천YWCA	50,000	제천YWCA	100,000	2022 경상권역 사무총장협의회	500,000
소계 (42개)		16,35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5,000,000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2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민문정)	200,000
국무총리실	1,000,000	소비자시민모임(문미란)	500,000	흥사단(박만규)	500,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00,000	여성평화외교포럼	100,000	대상(주)	3,300,000
대한어머니회중앙회(박애스더)	100,000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100,000,000	서울우유	1,000,000
사회적기업진흥원	200,000	한국YMCA전국연맹	1,000,000	한솔사무기기	100,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100,000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100,000	의류바자회수입	932,000
소 계(18개)		114,432,000			

2. 세상을 만드는 100개의 프로젝트(농협 301-0193-6894-41)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난파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인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1,000,000	백소영 연합회 이사	1,000,000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2,000,000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1,000,000	서다미 대학·청년협의회장	50,000	이주영 연합회 부장	1,000,000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1,000,000	신현주 청주YWCA 전 관장	100,000	이혜경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김덕순 울산YWCA 회장	1,000,000	송기영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3,500,000	이희정 연합회 팀장	100,000
김순영 전 갈리고 전국여성교역자회 회장	1,000,000	연합회국장 (박동순, 박은실, 배정미, 송록희, 최수산나)	1,000,000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애자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연합회부장(안정희, 이주영, 이혜련, 임진영, 홍현정)	1,000,000	정 속 안양YWCA 증경회장	100,000
김영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3,000,000	오경애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혜순 김필레기념사업회장	1,000,000
김은숙 목포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원영희 연합회 회장	1,000,000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김주현 파이낸셜 전 사장	2,000,000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1,000,000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	50,000
나은실 후원회 전 이사	1,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차경애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000,000
명진숙 은학의집 관장	1,000,000	유태규/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문영희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000,000
박경미 이화여대교수	300,000	이유림 서울YWCA 회장	1,000,000	한영수 후원회 이사장	1,000,000
박금자 강릉Y 증경회장, 증경회장단모임 회장	1,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박영숙 연합회 전 사무총장	700,000	이재홍/박동순 연합회 국장	1,000,000	홍인숙 전 권즈YWCA 총무	1,000,000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정수 소협 사무총장	100,000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박용옥 사)3.1여성동지회 회장	1,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2,000,000	김미숙 박은정 신록희 신정아 윤세영 이예린 이재경 황미선	160,000
박윤애 연합회 이사	1,000,000	소 계(70명)		57,160,000	

2) 후원 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논산YWCA	100,000	(사)순천YWCA	1,000,000	창원YWCA	1,000,000
(사)대구YWCA	1,000,000	(사)여수YWCA	1,000,000	(사)청주YWCA	1,000,000
(사)대전YWCA	1,500,000	(사)인천YWCA	400,000	은학의집	1,000,000
사)목포YWCA	1,000,000	(사)전주YWCA	1,000,000	2019 5부지역위원장 (김옥순, 권경미, 조철숙, 양애자, 홍순옥)	1,000,000
사)서귀포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사)세종YWCA	1,200,000	진주YWCA	1,000,000		
(사)수원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0		
소계 (18개)		17,20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100,000	농심	1,000,000	사회혁신기업 더함	1,000,000
한국소비자교육원	100,000	농협 명동지점	200,000	삼성전자	1,000,000
CJ제일제당	1,000,000	네이버	3,000,000	샘표식품(주)	1,000,000
(주)NS홈쇼핑	5,000,000	대한기독교사회	1,000,000	(주)아모레퍼시픽	2,000,000
(주)JSPC	1,000,000	동서식품(주)	1,000,000	한국아쿠르트	1,000,000
(주)오투기	1,100,000	롯데제과(주)	1,000,000	홀플러스(주)	5,000,000
럭스나인(주)	5,000,000	매일유업(주)	500,000		
소계 (20개)		32,000,000			

3. 기타 지정후원 : 오성군 5백만원(전국 사무총장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YWCA 1922 장학금 / SNS톤 모금현황(농협중앙회 301-1922-0000-31)

(2022. 1.1 ~ 2022. 12. 26)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김난주 김미숙 김미영 김병찬/임정임 김성이 김성희 김일석 김재화 김정민 김지영 김지현 김형남 도방주 돌람수련 문옥자 박문경 박은실 박진화 배옥희 배정미 배정희 백병숙 백은정 백정희 성은주 송록희 신성균 신인숙 양서영 원영희 유이인 안명성 안정희 안혜숙 이숙현 이신선 이연중 이영희 이은영 이종식 이종임 이주영 이지선 이희경 이희정 임진영 정서연 장수신 장진경 장희숙 정금주 정동신 조은영 차경애 최유중 표대중 한영수 MUNKHTOGTOKH	3,757,000
회원YWCA	강릉YWCA 광주YWCA 김해YWCA 논산YWCA 남양주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세종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산YWCA 울산YWCA 양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천안YWCA 청주YWCA 창원YWCA 춘천YWCA 충주YWCA 하남YWCA	9,320,000
합 계		13,077,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농협 301-0161-5540-11)

(2022. 10.22 ~ 2022. 11.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락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윤자 김영현 김은경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돌람수련 남희숙 남희진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옥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영자 신인숙 심은옥 안정희 양영식 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영미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권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우 조승환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만성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간임마누엘교회	16,856,600
회원YWCA	김해YWCA 부산YWCA 제천YWCA	1,220,000
기관	한양대 여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1,220,000
합 계		19,504,590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한국YWCA 모금(농협 301-0212-3441-71)

(2022. 4.1 ~ 2022. 12.29)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강병일 강하차 강희경 고문화 고복순 구정혜 권정자 김동경 김미애 김미자/김선희 김성희 김수연 김애자 김윤희 김윤희 김은영 김자영 김진주 김혜경 김혜진 남궁혜경 민경미 민진옥 박경진 박금자 박미라 박소진 박윤애 박희경 배유미 배정미 서정희 성지영 손화연 신미숙 신옥희 신인숙 신정아/신정원 안경자 안명옥 안혜숙 엄금자 엄봉순 오재진 옥경진 우영숙 원순자 유선혜 유순규 유영주 유애랑 유옥진 유정현 유혜미 윤수정 이강희 이광실 이미경 이보은 이복경 이성희 이송학 이순길 이순자 이순호 이신애 이예림 이은영 이정숙 이주영 이지윤 이한빛 이희영 이희경 익명 후원자 임영미 임용진 임은선 임현숙 장현옥 전민옥 전배자 정상숙 정지선 정혜진 조광현 조봉자 조은영 최경선 최든수 최수신나 최우용 최은숙 최현정 한미미 한은혜 홍수진 홍순옥 홍인숙 홍현정	5,430,000
단체	(사)논산YWCA (사)대구YWCA (사)대전YWCA (사)목포YWCA (사)순천YWCA (사)안양YWCA, (사)양산YWCA (사)울산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청주YWCA (사)통영YWCA 고선식품 공덕감리교회 교육부 군산한일교회 청년부 군산YWCA 남양주YWCA 늘푸른재가복지센터 부천YWCA 서울Y 시설운영사업위원회 속초YWCA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보유화 연세플러스비뇨기과 예수비전교회 의정부YWCA 이은교회 진주YWCA 진해YWCA 충주YWCA 파주할렐루야교회 포항YWCA	22,890,800
합 계		28,320,800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온라인 모금현황

(2022. 7. 1 ~ 7.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난주 김다영 김미숙 김병찬 김성희 김수연 김신정 김은경 김은주 김은희 김진용 김홍민 김혜연 나척더르즈 돌람수련 남궁혜경 박규덕 박동순 박문경 박순주 박은실 배정미 서순아 송록희 송소연 심민경 안정희, 양서영, 윤수정, 이영미 이수진 이예림 이은영 이재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현주 이혜련 이희정 임행식 장세영 정서연 최미선 최수산나 최수진 최유주 한영수 함석임 함희경 홍미경 홍수진 홍현정	1,090,000
합 계		1,090,00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양은서 간사

스토리텔링과 원예치유프로그램 '플라워텔링'



강릉YWCA는 국립대학육성사업 강릉원주대학교 지역참여 예산제도 공모사업으로 8월 22일(월)~11월 4일(금) 6기수 6명씩, 총 5회 수업, 30회 진행 및 특강 1회에 걸쳐, 총 44명이 수료하였다. 「플라워텔링」 프로그램은 이주여성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1회, 원예수업 4회로 진행하였으며, 특강은 생화 꽃꽂이로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들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통해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우울감 등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청소년 이해를 위한「합동워크숍」



10월 21일(금) 오후 2시, 동해평생학습관에서 합동워크숍이 열렸다. 동해시지방보조금사업으로 동해시 관내 청소년지도자 및 사회복지종사자 약 120명을 초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 팀플레이 공연팀을 초청하여 <사춘기메들리> 연극 공연을 관내 청소년지도자들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 및 사기 증진을 하고자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보호·선도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청소년유관기관의 지속적이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



서울Y는 11월 10일(목)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 'Precious Moment'를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앙상블 소마트리오,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함께했다.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창립 100년을 축하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의 소중한 순간을 만들었다.

속초YWCA

김다미 간사

돌봄종사자 '휴' 프로그램



속초YWCA(회장 박연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돌봄영역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몸을 휴(休)하게 마음을 유(愈)하게"라는 사업을 속초시사회복지기금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돌봄 영역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신치유사업으로 원예치료 5회기, 웃음치료 5회기 총 10회를 100여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였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원주YWCA와 함께하는 플로깅데이 '와플데이'



원주YWCA에서는 10월 28일(금) 오후 4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원주Y와 함께하는 플로깅데이(와플데이)를 원주Y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초록빛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걸음은 9월 30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원주시민의 환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인천YWCA

유지혜 간사

Y-틴, 대학청년Y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11월 5일(토) 인천시 동구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에서는 (사)인천YWCA의 Y-틴과 대학청년Y가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인천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위해서 매년 진행되는 연합행사로, 연탄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연탄을 나르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탄구입비용은 참가자들과, (사)인천YWCA의 이사, 위원, 실무자의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모금액으로 구입한 연탄 1500여장으로 팽이부리마을 어르신께 따뜻한 겨울과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두 번째 장 결과보고회



고양YWCA가 진행한 '기후위기19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 두번째 장'의 결과보고회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22일(화) 일산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본 사업은 작년 고양시 온실가스감축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후속작업으로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를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제안했다. 또한 채식선택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변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고양시 채식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젠더관점에서 기후위기대응 조

례안을 분석하고 개정을 해야하는 항목, 기후위기대응관련 각종 위원회의 성별·세대별구성, 회의회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였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광명YWCA 늘푸른문해교실 농촌체험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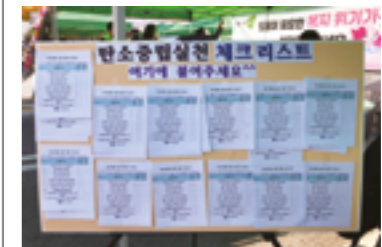


10월 24일(월) 광명YWCA '늘푸른문해교실'에서는 안성 신기팍 체험마을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어르신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농촌체험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되었다. 블루베리농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생태 변화와 친환경적으로 자라는 과정, 효능에 대해 듣고 수확된 블루베리를 가지고 잼과 칼국수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자유로운 체험을 즐기면서 학습자간 우정도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었다. 앞서 10월 15(금) 광명극장에서 광명시평생학습관마당 문해시화전 시상에서 광명Y의 박정순님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였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10월 22일(토) 남양주시 외부주민자치센터 광장에서 외부문화축제행사가 열렸다. 남양주YWCA에서는 부스를 신청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생활 속 실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드판에 붙이고 탄소중립에 대해 설명하며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붙이는 분들에게 손수건을 나눠드리며 참여를 유도하였다.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도록 다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내일을 위한 한코 뜨개전시회



11월 3일(목) 부천YWCA에서 부천에 거주하는 노년 여성들의 자조모임, 내일을 위한 한코한코 전시회가 열렸다. “노년 여성의 삶이란?” 질문에서 시작하여 할머니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넘어 다시 여성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일을 위한 한코한코”가 시작되었다. 단지 취미를 넘어 뜨개를 통한 작품활동으로 노년여성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해동안 열린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의 지지와 연대로 부천YWCA의 회원운동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성남YWCA

임은희 간사

민간단체 수질오염 보전활동 감시단 팔당호 캠페인 및 현장체험



성남YWCA는 지난 10월 31일(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을 위해 남한강 상류 두물머리에 가서 현장 탐방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며, 생태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물환경에 대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강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한강의 물환경과 생태에 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얻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캠페인 활동을 마치고 지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과 물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임을 깨닫고 돌아왔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어른으로 소통하기 '차이나는 소통클라스'

(사)수원YWCA는 11월 11일(금), 회관 강당과 온라인(ZOOM)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2022 인문학 콘서트 '차이나는 소통클라스'를 진행했다. 인문학 콘서트 '차이나는 소통클라스'는 소통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수원YWCA 이명순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스를 진행했다. 인문학 콘서트 '차이나는 소통클라스'는 소통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수원YWCA 이명순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인문학 강연으로 임정민 작가(베스트셀러 「어른의 대화법」 저자)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침착하게 말하는 어른의 소통법'이라는 내용으로 지혜로운 소통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소통방법을 배우으로써 가족,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사)안산YWCA 회원한마음대회



10월 14일(금) 대부도 경기장작센터에서 (사)안산YWCA 회원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40여 명의 회원들과 '안산평화의소녀상-대부도 선감역사박물관' 코스를 탐방하는 안산역사인권기행을 함께 진행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안산시민의 모금으로 건립된 안산평화의 소녀상과 일제 강점기에 소년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의 역사를 듣고 배웠다. 이후 회원한마음대회에서는 2022년 회원증모결과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사)안양YWCA 같이가치 나눔장날

(사)안양YWCA는 9월 27일(화) 회관 앞에서 같이 가치 나눔 장날을 열었다. 직원들 및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들, 지역특산품, 먹



거리 알뜰장터와 EM 환경발효액 무료보급을 하며 착한 소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였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성평등, 기후정의행동실천, 디지털 성범죄인식 캠페인 부스는 의견을 나누고 스티커 활동을 하는 등 안양YWCA 목적성을 다시 알릴 수 있는 귀한 소통의 장이었다. 코로나 19로 침체되어있던 지역주민들과 회원들이 장날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의정부YWCA 법인승인 온라인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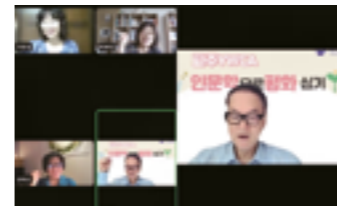


11월 1일(목) 의정부YWCA는 (사)한국YWCA가 개최한 법인승인심사를 위한 온라인간담회에 참여하여 법인 준비과정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사)한국YWCA 조은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의정부YWCA의 법인화를 향한 현재를 점검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YWCA는 회원운동과 연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만드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행동 withU'를 핵심활동으로 삼았다. 회원커뮤니티는 느슨한 조직으로 주체성과 친밀성을 기반으로 회원참여 방안이며, 함께하는 행동은 사소한 관심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치참여와 연대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 'withU' 브랜딩을 내세울 예정이다.

파주YWCA

김래정 간사

파주YWCA의 '인문학으로 평화심기' 평화리더 양성



파주YWCA의 2022년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인문학으로 평화심기'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평화통일교육을 9월 15일(목)부터 11월 24일(목)까지 상반기 10강, 하반기 10강, 2차례에 걸쳐 총 240명의 경기도민에게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독서습기의 전문 강사들과 함께 매주 1권씩 책을 소화하며 평

화의 정신을 탐구하고, 실천의 과제까지 함께 고민했던 이 교육이 경기도민의 평화감수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10강 중 8강 이상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 향후 평화교육강사 및 평화운동가로 활동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파주YWCA는 그동안 배출했던 평화리더들과 함께 평화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정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및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하여 남북한 평화연습, 상생과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갈 계획이다.

하남YWCA

김예진 간사

하남YWCA 평화통일음악회 개최



하남YWCA는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으로 11월 10일(목)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남 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평화통일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하남YWCA 신정원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배운례 회장의 인사로 무대를 시작하였다. 하남뮤직캠프가 '아침이슬' 등을 연주함으로써 막을 올렸다. 이어 윤정희 수필가는 나태주시인의 「멀리서 본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를 낭송했다. 두물소리는 「오솔레미오」 등을 합창했고, 하남YWCA합창단은 「내 나라 내겨레」 등을 노래했다. 그리고 바리톤 이동준은 「사공의 노래」, 소프라노 정진영은 「신 아리랑」, 테너 강기석은 「그라나다」, 바리톤 이정근은 「투우사의 노래」를 독창했다. 연주에 피아니스트 진영진이 함께 했다. 이번 음악회는 손 풍금, 기타와 같은 여러 악기 연주 및 중창, 시 낭송 등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논산YWCA 후원의밤 첼리스트 성승한의 시네마 콘서트 '지구를 사랑하다'

논산YWCA는 11월 10일 오후 7시 논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2022 논산YWCA 후원의밤 행사로 첼리스트 성승한의 시네마



콘서트 '지구를 사랑하다'를 개최했다. 박수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YWCA 활동영상, 전영자 회장 환영사, 백성현 시장과 서원 시의회 의장 축사,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 행사는 빨강계 달아오르는 지구의 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기후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일기기에 영화와 음악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첼리스트 성승한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민시후와 함께 연주를 선보이며 "예술로 기후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소의 힘"을 갖는 무대를 만들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대전YWCA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실천캠페인



11월 19일(토) 대전동구청 중앙광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실천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동구청 환경교육 체험마당에서 대전YWCA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로 대전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인 에터켓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통해 평소에는 손수건으로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다가, 식당에서는 일회용 앞치마 대신 사용하는 손수건 앞치마로도 이용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체험에 이어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을 전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로웨이스트 물품까지도 홍보하는 바이소셜(가치를 구매하는) 캠페인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의 자리이기도 하였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제천YWCA에서는 11월 15일(화) 제천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2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텃밭에서 정성으로 키워 낸 배추로 채소 다듬기, 양념 만들기, 배추 버무리기와 포장까지 모든 작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천YWCA재가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김치를 구입하거나 담그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 12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곶과 김치,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부터 해마다 이어진 김장 나눔 행사는 제천고 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5년째 후배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천안YWCA 박효정 팀장

천안YWCA 청(소)년 운동 '2022년 애들아, 밥먹자! 떡국떡 전달식'



지난 11월 7일(월)과 11일(금) 성환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22년 애들아 밥먹자! 떡국떡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굣길에 주먹밥을 나눠주는 대신 떡국떡 전달을 통해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장기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천안YWCA 한정순 회장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쌀 소비 촉진으로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사)청주YWCA 농민장터 개최



(사)청주YWCA는 지난 11월 5일(토) 청주시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농민장터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봉명동 회관에서 열리던 '반짝 알맹이 장터'가 더욱 확대되어 '농민

장터'로 개최되었다. 이번 장터에서는 '직거래장터', '로컬밥상', '반짝 플리마켓·아나바다 장터'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예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농가와 지역상점, 시민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장터가 되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전통장류, 누룩소금, 고구마, 각종 채소와 과일 등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가 10곳 이상 참여하고 로컬밥상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제철 먹거리 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로컬음식'을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로컬밥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음식을 선보임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선순환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내 주인을 찾아줘! 자원순환 벼룩시장



10월 22일(토) 충주시 호암지생태공원 내 장미원에서 충주YWCA Y-틴 '늘봄누리'는 벼룩시장을 열었다. 충주YWCA 자원·실무활동가 중심으로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과 입지 않는 옷들을 모았다. 많은 활동가의 참여로 다양한 소

형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도서, 장난감, 옷, 가방, 모자 등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품질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물건을 구매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벼룩시장을 통하여 자원순환 활동과 나눔 활동에 참여하므로 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 Y-틴은 물건을 판매하며 만족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Y-틴 회의를 통하여 WWF(멸종위기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여 환경동아리로서의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경상권역

거제YWCA 정의인 간사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거제YWCA 부설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11월 3일(목) 소노캉거제그랜드블룸에서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성인지 THE+하다'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거제시 이통장연합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양성평등의 실천 및 인식개선을 주제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과 사례에 대해 나누며 스스로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성인지와 양성평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나는 교육 후기에 "성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마을 이장으로서 양성평등 시각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성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김해YWCA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



김해YWCA에서는 매년 지역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를 진행,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10월 20일(목)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드라이브스루 브런치 행사를 진행, 11월 24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11월 25일(금)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11월 30일(수) 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내외와 무릎들개 등을 전달해 주셨고, 향후 12월 한달간 지역의 홀로어르신들에게 조성된 기금으로 구입한 내외 등과 더불어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는 김해시 관내 홀로어르신 뿐 아니라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의복이 제공될 예정이라 더욱 의미 있는 기금행사가 될 것이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사)대구YWCA '달빛동행'



11월 3일(목)~4일(금) 1박 2일 일정으로 영호남 문화교류 사업 '달빛동행'을 위해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다함께 광주를 방문했다. '달빛동행'은 대구와 광주의 다른 이름인 달구벌(대

구)+광주(빛고을)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문화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동행을 뜻한다. 첫째 날에는 광주YWCA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축하하고, 광주 역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양립 역사문화 마을을 탐방했다. 조아라 기념관,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을 둘러보며 광주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지산유원지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타며 가을색 짙은 광주 도심과 무등산을 구경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청소년 장학금 및 마산YWCA 기금마련을 위한 "LOVE 바자회"



10월 25일(화) 옛 우정집 주차장에서 마산YWCA "LOVE 바자회"를 열었다. 김명자 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바자회에는 마산YWCA 이사, 본부 및 부속시설 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에선 무료 체험부스(마크라메키링, 양성평등퍼즐, 드라이플라워염서)와 먹거리(떡볶이, 오뎅, 김밥 등) 부스, 살림 장만(건어물, 과일, 채소, 고추장 등) 부스, 의류·잡화 등 후원받은 다양한 아나바다 플리마켓 부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도 함께 열려 바자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발걸음 주신 회원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진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마산YWCA 운영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부산YWCA

여진경 부장

부산YWCA 생명·평화·통일 문화제-영화로 보는 북한문화



11월 10일(목)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부산YWCA 76주년을 기념하며 '생명·평화·통일 문화제-영화로 보는 북한 문화'를 오후 2시, 오후 5시 개최하였다. G아트북의 북한 동요 '반갑습니다,

'아리랑', '뽀뽀뽀 송' 오프닝 퍼포먼스 후에 북한 영화 <며느리 음식솜씨>, <열성 독자> 2편과 우리나라 영화 <은서> 영화 상영이 있었다. 2편의 북한 영화는 교훈을 담은 영화로 우리 일상 생활과 비슷한 면을 보게 되었고 <은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영화였다. 이 음영화제작위원회 정진아 대표이사, <은서>를 제작한 박준호 감독, 북한이주민통일강사협동조합 변선희 대표와 함께 북한문화에 대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생명·평화·통일 문화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향상과 부산YWCA 생명평화 통일운동을 알리고 확산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천YWCA 제6회 사천인권영화제



제6회 사천인권영화제는 "문을 열고 소리 내다" 주제로 특별 청소년 영화제(2022. 11. 22)와 본 인권영화제(2022. 11. 24-11. 26)로 나누어 총 4일에 걸쳐 진행 되었다. 특별 청소년 영화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인권과 꿈을 영화 구상, 영상 촬영, 편집 기술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해 만든 4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영화 상영 후에는 청소년 감독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본 인권영화제는 개막작 "풀 타임"으로 시작하여 폐막작 "오마주"를 끝으로 5편의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다. 싱글맘의 고충, 장애, 위안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등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마주하는 모습과 그들이 투쟁과 생존을 위해 어떤 문을 열어야 했는지를 담담하고 유쾌하게 담은 영화들이었다. 영화관을 나갈 때 내 안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등에게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안동YWCA

남수정 부장

탄소발자국 줄이기 위한 생활속 작은 습관 알아보기 캠페인

10월 20일(금)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공원에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와 지역먹거리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동Y의 회원들과 함께 안동시민 500명을 대



상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실천의 한가지인 생활 속 수입식재료를 줄이기 홍보를 진행했다. 지역에서 나는 무농

약 먹거리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가정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바르게 분리될 수 있도록 안내도 진행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와 재사용가능한 쓰레기의 구분법도 간단한 퀴즈게임을 통해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참여한 시민들은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양산YWCA

김유경 간사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여성의 경력이음 '워키토키멘토링' 개최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경하)는 11월 5일(토), 여성들의 경력이음 프로젝트 「워키토키멘토링」을 진행했다. 「워키토키멘토링」프로그램은 직종별 경력자와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가 참여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서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 및 고용유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무행정, 사회복지, 생산제조업, 요양보호사, 음식조리업 등 분야별 멘토 5명과 멘티 40명이 참석하였다. 특강을 통해 "아름다운 실수가 만든 삶"이란 주제 아래 그림책을 활용하여 직업에 대한 자존감, 도전, 가치관 등에 대해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종별 멘토링에서는 멘토가 멘티에게 면접 시 유의 사항, 급여체계와 근로 복지, 직장 내 상황별 문제해결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교류하며 친숙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사)울산YWCA 창립40주년 기념 '시민참여 토론회'

11월 15일(화) 울산과학대학교 청운국제관에서 (사)울산YWCA



창립40주년을 기념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실천 시민참여토론회" 열렸다. 김덕순 회장(사단법인울산YWCA)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기초강연으로 박홍석 센터장(울산탄소중립지원센터)이 '기후위기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하였고, 이어 최수산나 국장(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이 '여성, 기후위기를 살아내기로' 강연을 이었다. 패널토의는 이연주 이사(사단법인울산YWCA, 울산과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상연 박사(울산연구원), 강진희 전문위원(한국에너지공단), 조민조 PD(ubc울산방송)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역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탄소중립실천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나누었다.

진주YWCA

윤인주 간사

진주YWCA-YMCA 연합예배 (feat.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11월 22일(화) 진주YMCA에서 '빛을 발하라: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3부에 걸쳐 2022년 진주YWCA-진주YMCA 연합예배를 드렸다. 1부에는 영화 속 클래식음악을 통해 전파되는 영향력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는 진주YMCA 부이사장의 인도로 순서에 맞춰 연합예배를 드렸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의 제목으로 김홍식 목사(큰들교회)의 말씀 선포가 있었으며, 축도로 연합예배를 마친 후 3부에는 두 기관이 함께 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진주YWCA 고명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성이 진주YWCA회장과 윤현중 진주YMCA이사장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으며, 두 기관의 이사진, 실무자, 참석자 모두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을 버리는 휴지통'에 온갖 불평등과 부조리한 문구들을 적은 종이를 찢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진해YWCA

이재경 사무총장

아금바리 리폼으로 자원순환



진해YWCA는 11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복지박람회에 <아금바리 리폼으로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헌 가구와 폐현수막과 헌 옷 등을 이용하여 리폼을 하는 수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1년간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며 내년도 참가자 모집과 정트아트작품(6점) 전시를 함께 진행하였다. 내년 정기총회까지 전시회를 2회 더 가지며 헌옷으로 만든 에코백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2021년 30만원 5명에게 지급)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품을 소재로 만든 정크아트와 더불어 헌옷으로 만드는 물고기과 릴라씨(고릴라 멸종을 상기하기 위한 캠페인) 인형 만들기를 통해 현장에서 체험하는 창원시민들에게 자원순환과 재활용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사)창원YWCA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창원YWCA는 11월 14일(월)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윤소영 상임대표(경남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김은정 수석본부장(민주노동당경남지역본부)의 기조발언, 반혜영 사무총장(사)창원YWCA)과 서혜정 대표(경남여성장애인연대)의 기자회견문 낭독, 경남여성연

대의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으며 그 외 다수 경남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다”,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경남행동’을 출범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아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사랑 페스티벌



11월 12일(토)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앞에서 통영시 환경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사랑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날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 대신 박스를 이용해 간판과 포토존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물티슈 대신 행주를 사용하는 등 환경 페스티벌에 걸맞게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해 풍성하고 유익한 환경축제로 진행 되었다. 이날 진행된 체험으로는 환경퀴즈, EM섬유유연제, EM치약, 아이스팩 디퓨저, 양말목 키링 등 총 10가지 체험으로 진행되었으며 폐건전지, 우유팩, 멸균팩 등의 수거도 함께 진행되었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린(Green)환경 실천하기



9월과 10월에 걸쳐 포항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고 보호하고자 친환경 제품 만들기, 플로깅 캠페인, 클린하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친환경 제품 만들기는 샴푸바, 바디

바, 주방세제바 등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주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플로깅 캠페인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아 바닷가, 인근 상가 주변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에게 EM(Effective Micro-organisms)활성액을 나누었다. 클린하천 캠페인은 포항운하에 EM 흙공을 던져 하천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함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2022년 민·관·경 합동 폭력예방 캠페인



11월 21일(월) 광양5일시장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2022. 11. 25~12.1)을 맞아 광양YWCA 부속시설 광양여성상담센터의 주최로 「폭력예방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광양시청, 광양경찰서, 광양YWCA, 광양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행복을여는집(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참여하여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은 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민관경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폭력 예방 근절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및 피켓, 홍보물품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사)광주YWCA

서정현 국장

여성과 함께한 100년, 내일을 여는 광주YWCA

광주YWCA는 창립10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지난 11월 3일(목) 오후 2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함께한 100년, 내일을 여는 광주YWCA” 주제로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기념예배에서 안영로 목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2부 기념식은 김선옥 광주YWCA회장의 기념사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부총리,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의 격려사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행옥 광주YMCA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영상으로 보는 광주YWCA 100년, 시상식 및 기념패 전달식, 청(소)년 자립지원금 전달(우크라이나 고려인 자립청소년, 육아시설자립청소년 총 10명), 100주년 비전선포와 축하기념공연으로 강양은 성악가,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었고, 「광주YWCA100년」사 출판기념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교육



군산YWCA는 10월 24일(월)~25일(화) 2일간, 4회에 걸쳐 총 1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군산시니어클럽에서 2022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교육을 진행 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식생활, 건강을 위한 의약품 제대로 알기,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법, 생활 화학제품 제대로 사용하는 법, 홍보관, 체험관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통해 좀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이 되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남원YWCA 30년사 출판기념회



11월 25일(금) 남원YWCA에서 30년사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계

정회전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출판기념회는 유정이 회장의 기념사, 인영희 편찬위원장의 발간사, 문성순전회장의 회고사 및 이명자 초대총무, 박문화전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노길희 집필자의 '남원YWCA 30년사가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남원YWCA는 30년동안 선배님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40년, 50년, 100년에도 YWCA의 고귀한 정신과 삶을 물려주고 남원지역에 나눔과 섬김의 활동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창립7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사)목포YWCA는 11월 8일(화) 오후 6시 3층 강당에서 이사, 실무자, 장학금 대상자, 회원들과 약 80여명과 함께 창립 75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목포YWCA 창립 75주년 맞이하여 감사예배와 후원으로 봉사한 기관 감사패, 자원봉사로 헌신한 자원활동가(이사) 10년, 20년, 40년 봉사상, 실무활동가 10년, 15년, 20년 근속상 표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21명의 청소년리더십 기금 전달 등 기념식을 통해 창립을 축하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목포YWCA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YWCA의 지난 75년은 여성 운동으로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돌봄을 실천하고, 희망으로 청소년을 보듬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평화를 외치는 시간이었다. 이제 100년을 향해 생명·평화·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목포YWCA가 되기 위해 나아가겠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포럼 기후위기와 제주사회적경제의 역할 성황리 개최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공동대표 구만섭, 고맹수)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귀포YWCA회관 강당에서 '기후위기와 제주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도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고맹수공동대표의 인사, 이신선운영



위원장의 사회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이재찬 상임이사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자는 기후위기사대,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후위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후 이신선운영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고, 지정토론에 김석운영위원장, 한정희대표, 정창보팀장이 함께했다. 이어 청중토론으로 도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이후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사)순천YWCA 활동가연수 '화합을 통해 100년을 꿈꾸다'



(사)순천YWCA에서는 11월 14일(월)-15일(화) 1박 2일동안 충청북도 단양일대에서 "화합을 통해 100년을 꿈꾸다"라는 주제의 특강과 더불어 시루섬 다크투어로 진행하였다. "여가부 폐지"등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 (사)순천YWCA가 나아가야 할 운동방향등에 대한 공부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순천YWCA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면, 종이팩 분리배출"이라는 주제로 이사 위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사)순천YWCA RE:살림공간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순천시 관내 카페, 어린이집,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종이팩을 씻고, 말리고, 펼치는 작업등을 통해 종이팩 1톤 모으기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11월 종이팩 1톤 수거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수거한 종이팩은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종량제봉투, 휴지, 대나무칫솔 등으로 교환하여 연말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사)여수YWCA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성안전 모니터링



(사)여수YWCA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여수시 양성평등 기금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여수YWCA는 여수 관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불법촬영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과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현황 파악, 불법촬영카메라 현장 점검, 직접 제작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금지 스티커 배부, 점검 결과 행정부서 공유 등이었다. 직접 제작한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스티커는 일부 개방되는 민간화장실과 공동이용 화장실 상가에도 배부하였다. 점검 시 도출된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 필요'와 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해, 여수시와 연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익산YWCA 강지수 간사

익산YWCA 문화탐방 전부 완주군 산속 등대 방문



익산YWCA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과정 "슬기로운 휴직 생활, 당당한 직장 복귀" 수업 중 마지막 단계 힐링 문화탐방 전북 완주군 산속 등대를 10월 18일(화)에 다녀왔다. 산속 등대는 버려진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어른들에게는 잠깐의 휴식과 동심을 찾고 미술관의 여러 등대의 모습에서 수강생들의 모습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 버려진 제지공장 폐허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흰색 굴뚝을 빨간색 등대로 변화시켜 문화 길잡이로 빛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았고 다섯 동의 공장 중 한 동의 있던 자리로 천정과 기둥을 그대로 보존하여 당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등 대표님의 공간 안내는 산속 등대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들의 삶도 다시 변화되고 승화되는 시간으로 만들 희망을 주었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사)전주YWCA 기후인권 행동의 날 캠페인 실시

(사)전주YWCA는 10월 24일(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후 인권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전북YWCA협의회 회원Y인 군산, 남원, 전주, 익산이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친 캠페인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지 않으며, 기후 위기가 곧 인권의 위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후 위기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관한 질문에는 참여자 대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련성 역시 과반수가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 위기로에 취약한 직업에 관한 질문에는 '농어민'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신체적 취약계층, 야외노동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후인권 캠페인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위급성을 알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이 결코 인권과 무관하지 않음을 외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제주YWCA 추현우 간사

(사)제주YWCA,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범시민사회 제주행동 발족식 참여



11월 16일(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사)제주YWCA 등 도내 36개 여성 인권 단체 및 정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을 발족, 전국 693개 단체와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제주YWCA 사무총장의 발언 및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기자회견 중, (사)제주YWCA 김지숙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주행동은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022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이달의 생감

제목	필자	월	쪽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멋진 항해를 계속할 용기!	원영희	1-2	04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정혜	1-2	05
'청년성' 회복에 나선 YWCA 100주년	조은지	3-4	04
재구조화를 넘어 거듭남으로	조은영	5-6	04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이은영	7-8	04
새로운 100년, 더 큰 목소리로	김은경	9-10	04
YWCA 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여성주의'	백소영	11-12	04

말씀 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이제부터 다시	이진아	3-4	06
모든것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김신애	5-6	05
비전, 열정, 헌신의 여성 리더	신옥수	7-8	05
열등감 없는 변방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김은하	9-10	05
세련된 자매애	전수희	11-12	05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2022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2 정기총회 스케치			06
2022-2023 한국YWCA 운동정책	편집실	1-2	08
회원YWCA 신입회장단-지역협의회 대표			11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12
한국YWCA 창립 100주년			
한국YWCA 100주년 기념식	편집실	3-4	06
사진으로 보는 한국YWCA 100주년			08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문			10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			
국제여성평화포럼: 여성이 만드는 평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12
2022 여성평화 순례: 임진각 평화 누리공원에서 통일 한반도를 꿈꾸다	편집실	7-8	14
2022 YWCA 여성평화선언문: 새로운 100년,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다시 떠납니다			17
한국YWCA 100주년 감사축제			
기독교여성운동 100년 여정에 감사, YWCA 항해는 계속된다			06
사상식, 봉사상, 근속상	편집실	9-10	09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			15
축하공연 참가기			18
DMC 어린이합창단, 바투타, 총주YWCA찬무단			

한국 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 인버저닝 워크숍	정서연	1-2	16
100주년 후원모금 캠페인	안정희	1-2	18
홍청망청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편집실	5-6	06
100주년 기념 화보집	윤수정	5-6	07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윤수정	7-8	07
100주년 기념 사진전 '변화를 향해 우리, 햇살을 들다'	안정희	7-8	10
한국YWCA 100주년 특별상 '세상을 밝힌 YWCA프로그램상, 시민이 뽑은 YWCA프로그램상'	홍현정	9-10	12
한국YWCA 100주년 감사축제 오픈 버스	임주하	9-10	16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유스포럼	손자수	11-12	06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홍청망청 성장공유회'	홍현정	11-12	09

기획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제목	필자	월	쪽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에너지 전환	이유진	3-4	12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에너지 전환	유에스더		15
함께가는 탈핵의 길	고명정	3-4	16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이후, YWCA 강원도협의회 워크숍	백수미		17
기후위기 해결의 국제연대와 남북협력	명수정	5-6	12
한반도 기후회복력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할 위기의 시대	유에스더	5-6	15
북한의 위생, 보건문제도 함께 대처해야	안소진	5-6	16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운동을 위해	유에스더	9-10	20
수원Y, 청소년 제로웨이스트데이 행사 벌여	변남순	9-10	21
Y-틴 청소년 기후행동,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	편집실	9-10	23
기후위기를 다루는 운동과 화법	김현우	11-12	12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	유에스더	11-12	15

기획 WCC(세계교회협의회)를 다녀와서

제목	필자	월	쪽
2030, 제12차 총회는 열릴 것인가?	장윤재	9-10	40
한반도통일과개발협력을위한에큐메니컬포럼	최수산나	9-10	44
WCC 11차 총회 청년사전대회	이한빛	9-10	46
서로의 아픔에 공감, 직면한 문제 해결할 지원군 얻은 시간	서다미	9-10	48
경계를 말하고 듣고 넘는 곳, GETI	유에스더	9-10	49

기후위기와 여성

제목	필자	월	쪽
기후위기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윤숙	1-2	24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윤숙	3-4	20
기후위기시대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정은아	5-6	20
기후위기 속에서 땅과 생명을 살리는 여성농민	이윤숙	7-8	20
기후위기는 곧 젠더정의	이윤숙	9-10	24

청년 토크

제목	필자	월	쪽
청년 정책, 저도 포함되나요?	대학청년 YWCA	1-2	22
그해 우리는, 지금 우리는	대학청년 YWCA	3-4	22
대안가족을 이루다	대학청년 YWCA	5-6	20
MZ 세대의 소비트렌드, FOR ME족	대학청년 YWCA	7-8	28
플랫폼에 갇히다	대학청년 YWCA	9-10	24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대학청년 YWCA	11-12	24

로컬프렌들리 이야기

제목	필자	월	쪽
커뮤니티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김수진	1-2	28
Y- 지역 청년 커뮤니티	김수진	3-4	42
W- 지역 여성 커뮤니티	김수진	5-6	24
C- 지역 생활 커뮤니티(Local Lifestyle Business)	김수진	7-8	30
A-함께 먹고사는 경험 만드는 '동네 운영사'	김수진	11-12	28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K-좀비물'의 유행과 구원에 대한 질문	김선영	1-2	26
파친코, 기억되지 않은 자들의 역사	김선영	3-4	24
'N번방'이라는 빙산의 일각	오수경	5-6	2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근원	김선영	7-8	30
이토록 착 한 여성서사 <작은 아씨들>	오수경	9-10	30
혼란스럽고 미친 세상에서 서로를 살리는 힘	이윤숙	11-12	26

칼럼

제목	필자	월	쪽
[시민사회와 선거] 투표는 나의 힘	권수현	1-2	20
[시민사회와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이대남	김은주	3-4	18
[성평등]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차별구조와 인식	권수현	9-10	26
[지역과 함께] 전국1호 녹색특화매점 부산YWCA생협	백성희	1-2	42
[지역과 함께] 6.18 전국 탈핵행동 고리 2호기 폐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여진경	5-6	37
[교회와 함께]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	최규희	3-4	40
[교회와 함께] 갈등과 위기의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를 외치다	채송희	7-8	44
[이슈포커스] YWCA 백주년, 마주해야 할 질문	강남순	5-6	17
[이슈포커스] 여성신학 아카데미: 기독교의 평등사상	이주아	11-12	17
[탈핵] 기후불평등 너머 광야 이대로 살 수 없다	황인철	7-8	18
[탈핵] 기후위기행동의 방향과 기후운동의 과제	한재각	11-12	20
[평화] 여성이 만드는 평화	김성경	7-8	22
[평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국의 대만 군사침공 가능성	신상진	11-12	22
[CBS-NCCK 한반도 평화포럼]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찾다	남기평	7-8	32

YWCA 변화와 혁신

제목	필자	월	쪽
비영리법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박훈	1-2	30
비영리 규제 역할과 YWCA 역할	이희숙	3-4	26
YWCA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법인화 절차	정순문	5-6	24
회원 YWCA 재구조화 전문 상담, 챗봇(why 봇) 상담	조직혁신 지원국	7-8	47
회원 YWCA 재구조화 57개년 절반의 여정을 지나며	조직혁신 지원국	9-10	51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대전환	이명신	11-12	43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Y-틴 전국협의회	천유란	1-2	32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이수진	1-2	34
2022 선거대응 논의 워크숍 : 지방선거 기후위기 방향과 과제	유에스더	1-2	36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행동	이한빛	1-2	3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도론회	연합회 조직혁신 지원국	1-2	40
후쿠시마 11주기 전국동시다발 탈핵기후 캠페인	편집실	3-4	28
3.8 여성의날 우크라이나 전쟁반대 여성평화 시위	편집실	3-4	30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66)	김윤희 고하은	3-4	32
여가부페지 YWCA 대응	김예지	3-4	35
썸크머니 프로그램	홍수진	3-4	38
두 번째 사람책방	이예림	5-6	28
전국 동시다발 지방선거 캠페인	편집실	5-6	30
아시아YWCA 지역회의	이한빛	5-6	32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편집실	5-6	34
YWCA 신입이사교육	정서연	5-6	36
"요즘 날씨 Y라노"	편집실	7-8	34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편집실	7-8	36
"Y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서연	7-8	38
보노보 프로젝트팀 연극 '우리가 남기는 흔적의 문양들'	홍현정	7-8	39
2022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	이한빛	7-8	41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	이슬기	9-10	34
924 기후정의행진	편집실	9-10	36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 기도회	이현주	9-10	38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편집실	9-10	40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2인 시위	편집실	11-12	30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이은혜	11-12	32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11-12	34
YWCA 부산 탈핵 현장예배	유에스더	11-12	36
사람책방 히즈빈스 카페 임정택 대표	조은지	11-12	38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편집실	11-12	40

논평 및 성명서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 대선 정책 의제에 대한 주요 4당 후보답변		1-2	44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문 :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		1-2	48
20대 대선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1-2	50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라!		3-4	45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 1주년 기자회견문 :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3-4	46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 : 구조적 성파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를 마련하라!		3-4	47
2022 세계군축의 날 기자회견문 :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3-4	48
202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성명서 : 여성을 죽이는 폭력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5-6	43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문		5-6	44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5-6	46
기도문: 2022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7-8	50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7-8	51
YWCA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선언문 :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청(소)년, 여성, 지역의 자리로부터		9-10	54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사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9-10	55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모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9-10	56
여성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1-12	48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를 건설 반대한다		11-12	49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사태,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11-12	50

너의 청춘은 아프면 안되니까 건강검진 하러갈래



검진기관 찾기



저도 가면 되나요?
20살부터 2년에 한번, 누구나 대상이에요!



어디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



어떻게 받나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끝!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우울증 등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영유아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생후 14일~7개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이하

